

20일 Market Index			
↑ 코스피	6219.09	↑ 코스닥	1174.85
	(+27.17)		(+4.81)
↓ 금리 (연이자율)	3.348	↓ 환율 (원/달러)	1474.55
	(-0.023)		(-8.95)

삼성·SK 등
반도체 업황
장밋빛 실적 예고
04



수출·경상흑자 늘어도 약세... '환율 공식' 흔들

한은이 짚은 '환율의 새 공식'

반도체 호황과 사상 최대 무역흑자에도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외환시장의 작동 방식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전처럼 수출이 늘고 경상수지 흑자가 커져도 곧바로 원화 강세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민간의 해외투자 확대와 외국인 자금 흐름, 중동발 에너지 충격이 환율을 더 크게 흔들는 국면이란 진단이다. **〈관련기사 3면〉**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2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폭이 확대됐지만 실질환율은 오히려 상승, 즉 원화 절하가 상당 기간 이어졌다.

경상수지 흑자 늘어도 환율 상승 민간 해외투자·외국인 자금흐름 에너지 충격 등이 환율 변수 요인

수출과 경상흑자 확대가 곧바로 원화 강세로 연결되던 기존 공식이 흔들리고, 그 자리를 민간의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와 외국인 자금 흐름 같은 금융 변수가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대외자산 축적 방식의 변화가 깔려 있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해외자산 축적이 외환보유액 같은 공공부문 준비자산 중심에서 민간의 포트폴리오 투자 중심으로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고령화에 따른 저축 증가와 국내 투자 둔화가 맞물리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더 이상 원화 강세를 뜻하지 않고 금융계정을 통한 자본 유출과 함께 움직이는 구조가 됐다는 설명이다. 환율을 움직이는 충격 역시 재화 거래 중심의 '상품충격'보다 자본유출과

통화 절하를 동반하는 '금융충격'의 비중이 커졌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실제 최근 흐름도 이런 설명과 맞아 떨어진다.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8.3% 늘어 1988년 8월 이후 가장 빠른 증가율을 기록했고, 반도체 수출은 151.4% 급증했다. 무역수지도 257억4000만달러 흑자로 사상 최대를 찍었다.

그럼에도 한국은행은 지난 10일 금통위에서 원·달러 환율이 중동 전쟁에 따른 달러 강세와 외국인 국내 주식 순매도 영향으로 1500원대까지 올랐다고 진단했다. 수출과 경상흑자라는 전통적 원화 강세 재료보다 글로벌 위험회피와 금융시장 수급이 더 크게 작동했다는 의미다.

환율 문제는 단순한 시장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당국의 관리 과제로 더 직접 연결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스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19일 워싱턴DC에서 만나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공감하고 외환시장 관련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상흑자만으로 환율 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구조 변화 속에서, 당국도 환율의 '레벨'보다 과도한 쏠림과 변동성을 관리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의미다.

문제는 약한 원화가 외환시장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데 있다. 3월 수입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8.4%, 전월 대비 16.1% 올라 3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고, 원유 가격은 88.5%나 급등했다.

한은은 "중동발 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이 물가 상방 압력을 키우고 성장 하방 위험도 함께 높인다"고 밝혔다. **1/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李 대통령-모디 인도 총리, 공동식수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뉴델리 영빈관 하이데라바드 중앙공원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아쇼카나무(ashoka tree) 공동식수를 하며 악수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뉴시스

저전력 D램 '소캠2' 본격양산 SK하이닉스, 메모리 세대교체

압착식 커넥터 기반 모듈 구조 탈부착·교체로 유지·보수 편의 기존대비 대역폭 2배 이상 확대

SK하이닉스가 10나노급 6세대(1c)L PDDR5X 저전력 D램 기반 차세대 메모리 모듈 '소캠2(SOCAMM2)' 192GB를 본격 양산한다고 20일 밝혔다.

소캠2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제품에 주로 쓰이던 저전력 메모리를 서버 환경에 맞게 재구성한 차세대 모듈이다. 기존 LPDDR이 메인보드에 직접 납땜되는 방식이었다면 소캠2는 압착식 커넥터 기반 모듈 구조로 탈부착과 교체가 가능해 서버 운영 과정의 유지·보수 편의성도 크게 높였다.

이날 SK하이닉스는 "이번 제품에 최신 1c 나노 공정을 적용해 기존 RDIMM 대비 2배 이상의 대역폭과 75% 이상 개선된 에너지 효율을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모듈 크기도 기존 DIMM 대비 57% 작아 고밀도 AI 서버 환경에서 공간 활용도가 높다.

인공지능(AI) 시장이 학습에서 추론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거대언어모델을 저전력으로 구동할 수 있는 소캠2가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SK하이닉스는 글로벌 CSP(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수요에 맞춰 양산 체제를 조기 안정화했다.

이번 제품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플랫폼 '베라 루빈(Vera Rubin)'에 최적화돼 설계됐다. 베라 루빈에는 36개의 CPU와 72개의 GPU가 탑재되며 소캠2는 CPU 인근에서 원활한 데이터 처리를 돕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SK하이닉스는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보유한 초거대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모리 병목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전체 시스템 처리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美-이란 기싸움, 해상 무력시위 번져

전운 감도는 페르시아만

미국과 이란의 기싸움이 페르시아만 해상에서 무력시위로 번졌다. 미군이 이란 선박에 포격을 가한 뒤 나포했고, 이란군은 이에 대응해 드론으로 미 군함에 타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2주간의 휴전 기간 만료를 이틀 앞둔 시점이다.

미국은 후속협상을 위해 대표단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파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타결에 이르지 못할 시 "더는 착한 사람 행세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란 측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에 대한 간섭(역봉쇄)을 철회하지 않는 한 협상 재개는 없다고 경고했다. 이란은 적국의 속내가 의심된다고 했다. 전투 재개 내지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언급이다.

미군은 19일(현지시간) 이란 화물선에 함포 사격을 가한 뒤 나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적은 글에서 "오늘 길이 약 900피트(275m)에 무게가 항공모함에 맞먹는 '투스카'라는 이름의 이란 화물선이 우리 군의 해상 봉쇄를 뚫으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밝혔다. **〈3면에 계속〉**

/김연세 기자 kys@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이 대통령, 간디 묘소에 헌화... "온 세상이 평화로 가득하길 기대하며 노력할 것"
▲김 총리 "지방선거로 추경 집행 늦어질 가능성 상당수 파악... 신속 편성 독려" **〈사진 뉴시스〉**

▲김 총리 "현대차 투자는 꿈의 시작... 새만금, 5극3특 대표 선도모델로"
▲정청래, 장동혁 "방미" 비판... "차관보 만나려 목뺏고 기다렸나"

▲송언석 "장특공 폐지 안 돼...李, 당정 간 조율도 안 된 메시지 올려"
▲조국 "KTX 경기남부역 신설해야... 안 되면 국회서 따질 것"

社告

메트로경제가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찾습니다!

■ 모집부문

- ① 신입 취재기자(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 ② 영상 촬영 및 편집(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 모집내용

- ① 전형방법
 - ▲ 1차: 서류전형
 - ▲ 2차: 취재역량평가(기사 작성·영상제작 및 편집 평가)
 - ▲ 3차: 면접(1차 실무 면접 → 2차 최종 면접)
- ② 모집인원: 00명
- ③ 응시자격
 - ① 4년제 정규대학 또는 동등학력 이상 졸업자(2026년 8월 졸업 예정자 응시가능)
 - ② 경력, 성별 및 나이 무관
 - ③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④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출서류

- ① 회사입사지원서 1부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구인사이트(잡코리아·사람인)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 ② 졸업(예정)증명서 등은 추후 최종 합격자에 한해 제출

■ 원서접수

- ① 기간: 2026년 4월 1일(수) ~ 2026년 4월 30일(목)
- ②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recruit@metroseoul.co.kr / 방문 및 우편 접수(4월 30일 도착분)
- ③ 접수장소: 03035 서울특별시 중로구 자하문로17길 18 (옥인동, 메트로빌딩)
- (주)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 앞

■ 채용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년 5월 8일(금)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취재역량 평가시험

- ① 일시: 2026년 5월 13(수) 10시 ~ 16시 40분
- ② 장소: 추후 통지
- ③ 내용: 공지하는 주제로 취재기사 작성 또는 영상제작물을 제작해 제출
- 1차 실무면접
 - ①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② 일자: 2026년 5월 14일(목)~15일(금) 중 1일
 - ③ 장소: 메트로경제 본사 3층 회의실
 - ④ 기타: 면접 시간은 개별 통보
 - 2차 최종면접
 - ① 대상: 취재역량평가시험 및 1차 실무면접 합격자 **〈2면에 계속〉**

metro

경제분야 등 인도 협력 확대... '500억달러 교역' 발판 마련

(2030년)

李 대통령, 인도 모디 총리 정상회담
에너지 공급망 등 공조강화 방안 논의
비즈니스 포럼 참석... 기업 협력 당부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0일(현지 시간) 뉴델리 대통령궁 광장 라슈트라바티 바반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드라우파디 무르무(왼쪽 세번째)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역내 평화와 에너지 공급망에 대해 논의했다. 또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협력도 적극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도 정부가 준비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모디 총리와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첨단기술·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수준을 끌어올릴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500억달러 달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최근 중동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극도로 혼란하고, 에너지 공급망이 불안

정한 상황에 대비한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개된 현지 매체 '타임즈 오브 인디아' 인터뷰에서 "한국은 모든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도록 인도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러한 공동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련 국제 무대에서

도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인도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수급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의 안전한 항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주요 에너지 수송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서아시아 위기가 글로벌 경제와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양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과 인도는 모두 원유와 천연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공급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며 "주요 해상 교통로의 안전 확보는 양국 국민의 안전은 물론 국가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했다.

아울러 "양국이 함께 추진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라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과 인도의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은 공동의 국익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정상회담을 마친 후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산업통상부와 인도 상공산업부가 공동 주최한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 자리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등 경제인 250여명이 함께했다. 인도 측에서도 산마

르(Snamar)그룹 비제이 산카르 회장과 에사르(Essar)그룹 라비칸트 루이아 부회장 등 기업인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한국과 인도의 관계를 높여 평가하며 양국의 대표 기업인들에게도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포럼에선 첨단 제조 및 철강, 디지털 경제, 에너지 전환 등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포스코, 현대차, 크래프톤 등 기업 관계자들이 발표를 한 뒤 양국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측은 조선, 디지털,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0건의 민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여기에는 한국경제인협회와 인도상공회의소 간 협력 MOU, GS건설이 참여하는 인도 풍력 리파워링 사업 MOU, 네이버가 참여하는 인도 지도 서비스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MOU 등이 포함됐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주요 그룹 총수, 아시아 사업 확장 팔 걷어

신흥시장·생산거점 동시 확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분산 기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인도·베트남 순방을 통해 아시아 사업 전략 변화에 속도를 높인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글로벌 사우스'의 가파른 성장세가 맞물린 가운데 신흥 시장과 생산 거점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인도는 현지 시장 공략과 확장을 위한 지역이며 베트남은 생산과 수출, 공급망 운영의 핵심 축이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 등 정의선 회장, 구광모 회장 등은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일정에 맞춰 출국해 현지 경제 사절단 활동을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인도의 거대 시장과 베트남의 생산 효율성이 국내 기업의 첨단 기술과 결합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단순 시장 확대를 넘어 글로벌 최상의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의 실행력을 높여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함이다.

우선 삼성전자는 인도 최대 기업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와의 협력에 나선 방침이다. 이 회장은 이번 방문 기간 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무게시 암바니 회장과 만나 인도가 추진 중인 세계 최대 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과 차세대 통신(6G), 배터리 등 미래 신기술 분야의 협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베트남에서는 현지 생산 거점을 점점하고 경쟁력 확대에 나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인도 진출 30주년을 기점으로 현지화 전략을 고도에 속도를 높인다. 지난 1월 현지 공장을 점점한 정 회장은 이번 순방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재회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인도를 아세안 시장 공략의 전진기지로 삼아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베트남에서는 아세안 시장 공략을 위한 생산능력 확대가 실행될지가 관심사다. 현대차는 베트남을 동남아 시장 공략의 전진기지로 삼고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현지 사업 점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LG그룹은 인도를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 시장을 전략적 핵심 기지로 육성하는 '글로벌 사우스 2.0'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도 사업 확장이 이어지고 있다. LG전자는 베트남을 전장 부품 사업의 핵심 생산기지로 육성하고 있으며 LG이노텍과 LG디스플레이도 주요 생산 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베트남에서 합류해 사절단을 이끈다. SK그룹은 베트남을 중심으로 에너지와 반도체 소재, 데이터 인프라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월 베트남 응에안성에서 추진되는 약 3조3000억원(23억 달러) 규모의 '퀸랍(Q uynh Lap) LNG 발전 프로젝트'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며 현지 에너지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LNG 터미널과 가스복합발전소 사업을 비롯해 배터리·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현지 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 강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양성운 기자 ysw@

metro



포스코그룹, 글로벌 사우스 전략 '탄력'

장인화 회장, 현지사업 후속논의 전망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사진)이 인도·베트남 순방에 동행하면서 포스코의 현지 생산·공급망 구축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스코는 인도에서 일관제 철소 합작을 추진하며 생산체제 구축에 나서는 한편, 베트남에서는 배터리 소재와 물류·에너지를 아우르는 공급망 확장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사업 관련 후속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이재명 대통령의 19~24일 인도·베트남 순방에 맞춰 두 국가에서 추진해온 주요 프로젝트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장인화 회장은 경제사절단에 동행하며 현지 주요 프로젝트들을 직접 챙길 예정이어서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는 물론 포스코의 현지 밸류체인 확대를 통한 글로벌 사우스전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인도에서는 일관제철소 프로젝트가 실행 단계에 있다. 포스코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인도 오디샤주에 연산 600만톤 규모의 통합 제철소를 설립하기 위해 인도 JSW스틸과 50대50 합작법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8월 주요 조건 합의서 체결 이후 투자 금액과 지분 구조까지 확정되며 사업이 구체화 단계로 넘어갔다는 평가다.

포스코는 50억8800만루피(약 800억원)를 투입해 JSW 자회사 사프란 리소 시즈 지분 50%를 인수한다. 해당 자금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은 부지 확보를 위한 초기 투자로, 오는 12월 말까지 거래를 마무리하면 합작법인으로 전환된다. 이후 설비 투자는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인도 투자는 성장성이 높은 현지 철강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인프라 투자와 자동차 산업 확대로 철강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는 기존 사업에서 나아가 생산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인도 내 자동차관련 생산법인인 포스코 마하라슈트라 스틸의 매출은 1조9625억원, 강관 가공거점인 포스코 인디아 프로세싱센터와 푸네 프로세싱센터의 매출은 각각 1조383억원, 5619억원을 기록했다.

베트남에서는 배터리 소재 중심의 공급망 확장이 진행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4억달러를 투입해 타이응우엔성에 연산 5만5000톤 규모의 음극재 공장을 건설한다. 베트남 최대 건설·부동산기업인 비글라세라와 협력해 하반기 착공, 오는 2028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류와 에너지 사업도 병행 추진되고 있다. 포스코플루오는 최근 현지 법인을 설립했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액화 천연가스(LNG) 공급과 발전소 건설 투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혜은 기자 dhalechale@



"신뢰받는 AI 메모리 솔루션 기업 자리매김"

>> 1면 '저전력 D램...'서 계속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AI 가속기의 연산 성능이 아무리 높아져도 데이터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전체 시스템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HBM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전력·비용 문제를 보

완할 수 있는 중간 계층 메모리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소켓2가 본격 확산되면 GPU·HBM은 프리미엄 성능을, 소켓2는 AI 인프라의 총소유비용(TCO) 최적화를 각각 책임지는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는 HBM·DDR5·LPDDR·CXL 메모리·소켓으로 이어지는 '풀스택 AI 메모리' 포트폴리오를 통해 학습부터 추론까지 AI 인프라 전 구간을 아우르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김주선 SK하이닉스 AI Infra 사장(CMO)은 "글로벌 AI 고객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고객이 가장 신뢰하는 AI 메모리 솔루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社告

- ② 일자 : 2026년 5월 19일(화)
- ③ 장소 : 메트로경제 본사 3층 회의실
- ④ 기타 : 면접 시간은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년 5월 22일(금)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기타
- ①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②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02-721-9851)로 문의 바랍니다.

종전 기대 꺾이자 환율 요동... 美·이란 긴장에 원·달러 출렁

20일 원·달러 환율 1477.2원
역외 증가보다 11.4원 올라
휴전 종료 앞두고 긴장 고조
2차 협상 개최 여부에 촉각
종전 기대 선반영 속 재급등 우려



‘중동사태’ 향방이 원화값 안정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서울 하나은행 위변조센터에 원화와 달러화가 함께 놓여 있다. /뉴시스

하락 기대감이 커지던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 주말 이스라엘과 레바논(헤즈볼라)의 휴전협정이 체결되며 ‘중동사태’의 출구전략을 제시했지만, 22일 임시 휴전 종료일을 앞두고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불확실성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20일 서울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77.2원에 주간거래(오후 3시 30분 증가)를 마쳤다. 전 거래일 증가인 1483.5원 대비 6.3원 내렸지만, 지난 19일(현지시간)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 F) 시장(역외환율 시장)의 원·달러 환율 1개월물 증가인 1465.80원과 비교해선 11.4원 올랐다.

당초 시장에서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이란 측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소식이 전해진 이후 ‘중동사태’의 종료 기대

감이 커지며 원·달러 환율도 빠르게 하락(원화 가치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오는 22일 휴전 종료일을 앞두고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환율 변동성도 커지는 모습이다.

앞서 이스라엘과 레바논(헤즈볼라)은 지난 17일(현지시간)부터 10일간의 임시 휴전에 돌입했다. 휴전 이후에도 국지적인 충돌은 지속되고 있지만, 이란이 중동사태 종전 및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조건으로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중단을 요구했던 만큼 종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

졌다.

지난 17일 오후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에 돌입하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개방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틀 낯인 18일 돌연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폐쇄한다고 태도를 바꿨다. 이란 측은 “이란 항만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봉쇄는 명백한 휴전협정 위반”이라면서 “이란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고 봉쇄 이유를 들었다.

호르무즈 해협이 재봉쇄된 다음 날인

19일(현지시간) 미국은 해상 봉쇄를 돌파하려 시도한 이란 국적 화물선에 발포한 뒤 나포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화물선은 중국에서 출발했으며, 미국 측의 회항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늘 ‘투스카’라는 이름의 이란 화물선이 해상 봉쇄를 뚫으려 했지만 잘되지 않았다”라면서 “해당 선박은 미 재무부의 제재 목록에 있었고, 지금 미 해병대가 해당 선박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적었다.

미국과 이란이 오는 22일 임시 휴전 종료일을 앞두고 ‘강 대 강’으로 맞서는 가운데, 미국은 오는 21일(현지시간)을 2차 휴전 협상을 위한 시한으로 제시했다. 트럼프는 미국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스티브 워코프 특사가 20일 밤 파키스탄에 도착할 것이며, 재러드 쿠슈너(트럼프의 사위)도 21일 협상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 해제를 2차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란의 국영방송 IRNA는 “미국의 과도한 요구와 비현실적 기대, 계속되는

태도 변화, 그리고 휴전 위반에 해당하는 해상 봉쇄 지속을 이유로 이란은 미국과의 2차 협상을 거부했다”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2차 협상의 개최 여부와 그 결과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본다. 이미 환율을 비롯한 금융시장이 종전 기대감을 선반영하고 있어서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연구위원은 “금리나 환율 등 가격지표는 이미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종전 기대감을 선반영하고 있다”면서 “2차 협상 개최가 곧 종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전에 가까워지는 만큼 2차 협상의 개최 여부에 금융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원·달러 환율 또한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구할 것인지, 혹은 다시 급등할지가 2차 협상의 진척 여부에 달려 있다”면서 “전쟁이 재개되면 유가 및 달러 급등으로 외환시장은 재차 변동성 장세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주간 환율 상하한선으로

는 달러당 1440~1490원을 제시했다. /안승진 기자



asi1231@metroseoul.co.kr metro

화웨이, 가로 폴더블 ‘퓨라X 맥스’ 출격

화면비 바꾼 ‘여권형’ 폴더블 제시
침체 속 중국 폴더블 성장세 뚜렷

화웨이가 중국에서 업계 최초로 가로형 와이드 폴더블폰 ‘퓨라X 맥스(Pura X Max)’를 출시하며 스마트폰 시장의 새로운 폼팩터 경쟁을 예고했다. 삼성전자와 애플도 하반기 유사한 형태의 제품 출시를 준비 중이어서 3파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0일 화웨이는 중국 상하이에서 발표회를 갖고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퓨라X 맥스를 공개했다. 이번 출시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 정체에 빠진 가운데 폴더블이라는 새로운 폼팩터로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6% 감소하며 최근 3년 내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AI 스마트폰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실제 교체 수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폴더블 시장만큼은 같은 기간 중국 내 판매량이 전년 대비 65% 급증하며 유일한 성장 엔진으로 부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화웨이는 기존 폴더블의 한계로 지적돼 온 화면 비율을 바꾸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퓨라X 맥스는 화면을 안쪽으로 접는 인폴딩 구조로,

내부에 7.69인치 WQHD급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외부 커버 스크린은 5.5인치 크기로 구성됐다.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시리즈가 유지해온 세로형 바타입을 벗어나 가로 폭을 넓힌 ‘여권형’ 설계를 채택했다. 기린 9030 칩셋을 탑재하고 6000mAh를 웃도는 대용량 배터리와 스타일러스를 지원하며 하모니OS 6.1을 탑재했다. 대화면에 최적화된 AI 기능도 강화돼 스케치나 텍스트 입력만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 등이 탑재됐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트럼프 “합의의 기본 틀은 잡혔다”

▶▶ 1면 美·이란 기싸움... '서 계속

그는 “미 해군이 오만반에서 이를 막아선 뒤 항행을 멈추라고 했으나, 이란 선원들은 응하지 않았고 우리 해군 군함이 기관실에 구멍을 내 정지시켰다”고 했다.

또 “지금 미 해병대가 그 선박을 붙잡아 두고 있다. 안에 뭐가 있는지 살피고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는 해당 화물선이 불법활동 이력 탓에 미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 직후 미 중부사령부가 구체적 경위를 발표했다.

트럼프는 또 “대표단이 이슬라마바드

로 향하고 있다. 그들은 협상을 위해 내일 저녁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아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안을 냈고, 그들이 받아들이길 바란다”면서 “안 그럴 시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다리를 무너뜨리겠다”며 엄포를 놔다.

이어 “더 이상 착한 사람처럼 굴지 않을 것이다. 이란의 살해 기계는 멈춰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다만 같은 날 미 매체 약시오스와 인터뷰에서는 누그러진 표현을 썼다. 그는 “괜찮게 여기고 있다. 합의의 기본 틀은 잡혔다. (협상이 타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고양국제꽃박람회

International Horticulture Goyang Korea 2026

꽃, 시간을 물들인다

4.24(금) ~ 5.10(일)

일산호수공원

고양특례시

정원 고양국제꽃박람회재단 Goyang International Expo Foundation

반도체 업황 '장밋빛 실적' 예고... 중동 변동성은 대비해야



/ChatGPT로 생성한 SK하이닉스 HBM 반도체와 AI 수요 확대를 형상화한 이미지.

개인 투자자 직장인 이 모(30)씨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보고 고민에 빠졌다. 장밋빛 실적과 전망으로 주가가 치솟자 돈을 더 넣어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해서다. 이씨는 삼성전자 주가가 한창 오르던 2021년 초 '9만 전자'에 올라왔지만, 이후 기약 없는 하락장에 5년을 버텼다. 이씨는 "여기저기서 반도체가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해서 일단 들고 있는데 불안하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본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인공지능(AI) 수요를 중심으로 호황세가 이어지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동반 상승 곡선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도 높아지고 있다

◆ 실적 등에 업고 반도체 날아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57조
SK하이닉스, 34조8753억 전망

실적·AI 수요에 '매수' 신호 유지
변동성에 포트폴리오 다변화 권유

는 전거래일 보다 0.69%내린 21만4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5거래일 만의 하락이다. 시가총액 2위 SK하이닉스는 3.37% 오른 116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중에는 117만500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장밋빛 실적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1~3월) 57조2000억원 규모의 영업 성적표를

발표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영업이익이 3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에 주가가 탄력을 받았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가의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 평균 전망치는 34조8753억원이다. 일부 증권가는 영업이익이 40조원을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도 제기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90조원을 웃돌 수 있다.

2분기 기대치는 더 좋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재고는 1~2주 수준으로, 사실상 바닥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전체 메모리 출하의 60~70%를 흡수하며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며 "주요 고객사들이 공급 안정성을 우선하면서 주문 강도 역시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의 투자은행(IB)과 증권사는 대형 반도체주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씨티그룹은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3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7배를 넘는 규모다. 골드만삭스는 SK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을 202조 원으로 추정했다. 골드만삭스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을 근거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목표주기도 각각 26만원, 135만원으로 제시했다. 맥쿼리증권은 삼성전자 목표가를 34만원, SK하이닉스를 170만원으로 제시했다. 맥쿼리증권은 보고서에서 "과거 중립적이었던 시장에서 메모리 공급 부족 심화에 따른 강한 긍정론으로 선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용 DRAM·낸드가 2026년 1분기에 두 배로 상승할 전망"이라며 연중 내내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증권사들은 최근 목표주가를 150만~190만원 수준까지 상향 조정했다.

◆중동발 변동성 경계해야
국내 반도체주에 집중 투자해온 개인

투자자 심 모(35)씨는 결국 지난 16일 보유한 주식의 거의 전량을 매도했다. 지난해 '55만 닉스'에 올라탄 심씨는 "SK하이닉스 주가가 110만원대까지 치솟자 이제는 맘 편하게 처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도 거침없이 올라가는 SK하이닉스 주가를 보고 "조정 국면에 다시 단타로 들어가야 하나 혼란스럽다"고 했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호황'을 가리킨다. TSMC와 ASML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 AI·고성능컴퓨팅(HPC) 수요가 소비자용 IT 부진을 압도하고 있다고 밝히며, 선단공정과 첨단 장비 중심의 투자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자본지출 증가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구조도 뚜렷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영업이익과 수출 실적, 세계 인공지능(AI) 수요 등을 근거로 '매수' 신호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동발 높은 변동성을 우려하며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권유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일시적인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지난해 국내 상장사 현금배당 38조 돌파 '역대 최대'

거래소 '12월 결산 배당 현황 분석'
코스피, 총 배당금 35조1000억
밸류업 공시 기업 배당성향 높아

지난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현금 배당이 38조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밸류업 공시를 진행한 상장사들의 현금배당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20일 '12월 결산 현금 배당 법인의 배당 현황 분석'을 통해 코스피 시장에서는 799개사 중 566개사(71%)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총 배당금은 35조1000억원으로 전년(30조3000억원) 대비 15.5% 증가했다. 코스닥 시장의 배당법인 수도 666곳으로 전년 대비 8.8% 늘었으며, 배당금 총액도 3조1000억원으로 34.8% 늘어났다.

코스피·코스닥 각각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양 시장의 현금배당 합산 총배당금은 38조원을 상회한다.

코스피 시장의 보통주 평균 시가배당률은 2.63%, 우선주는 3.06%로 전년 대비 각각 0.42%포인트, 0.64%포인트 감소했다. 평균 배당성향은 39.83%로 전년(34.74%) 대비 5.09%포인트 상승했다. 현금배당 실시법인의 평균 주가상승률도 지난해 32.90%를 기록하면서 전년(-5.09%) 대비 37.99%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밸류업 공시를 제출한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밸류업 공시를 진행한 12월 결산 법인 314개사 중 304개사(96.8%)가 배당을 실시했으며, 총 배당금은 30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87.7%를 차지했다. 시가배당률과 배당성향 모두 전체 평균을 상회했다.

같은 기간 고배당 공시를 진행한 255개사의 배당금도 총 22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64.9%를 차지했다. 고배당 기업들의 시가배당률과 배당성향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밸류업 공시법인의 결산 현금배당 총액이 전체 현금배당 총액의 약 88%를 차지하고, 대부분이 고배당 공시법인에 해당해 순이익의 절반을 주주에게 환원하고 있다"며 "밸류업 공시법인이 더 높은 주주 환원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및 국내 증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평균 시가배당률이 2.637%로 전년 대비 0.108%포인트 상승했고, 최근 5년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평균 시가배당률이 상승하고 국고채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평균 시가배당률이

2021년 이후 4년만에 국고채 1년물 수익률(2.433%)을 상회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배당률이 국고채 수익률을 웃도는 법인이 666사 중 288사로 집계됐다.

배당 성향도 높아졌다. 코스닥시장 평균 배당 성향은 37.4%로 전년 34.4%보다 3.0%포인트 올랐고,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금배당을 실시한 법인의 주가 상승률도 크게 높아졌다. 코스닥시장 배당법인의 전년 말 대비 평균 주가 등락률은 26.2%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 연간 등락률 36.5%보다는 낮았지만, 5년 연속 배당법인의 5년간 주가상승률은 18.5%로,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 등락률 마이너스(-4.4%)를 22.9%포인트를 상회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metro

WGBI 편입 이후 日 자금 유입 늘어

재경부, 도쿄서 국가 투자설명회
韓 국고채 매력적 투자처로 인식

정부가 대한민국의 세계국제지수(WGBI) 편입을 계기로 일본 현지에서 투자 유치에 나섰다. WGBI 편입 이후 일본계 자금의 국내 유입이 늘었다는 집계도 나온다.

재경경제부는 지난 16~17일 이틀간 도쿄에서 FTSE Russell, 연기금, 주요 자산운용사 등 총 9개 기관과 개별 면담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른바 국가 투자설명회(IR)이다.

재경부의 허승철 국고정책관은 투자자들과 만나 "지난달 말부터 일본계를 중심으로 신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WGBI 편입이 차질없이 진행된 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일본 투자자들은 WGBI 편입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제도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한국시장의 성숙도와 정부의 시장 선진화 의지에 근거해, 한국 국고채를 매력적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4월 WGBI 편입 개시를 계기로 한국 국고채에 투자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또 오는 11월까지 편입비중 상승에 맞춰 지속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일부 참석자들은 "아직 국고채 투자 준비단계에 있는 기관들도 있는 만큼, 앞으로 자금유입 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실제 투자 집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WGBI 자금유입 효과 극대화를 위한 개선사항 등도 논의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화학산업협 "중동발 나프타 불안 대응... 공급안정 최선"

금호석화·롯데케미칼 등과 입장문

한국화학산업협회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나프타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국내 공급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원료 확보와 설비 가동률 제고를 통해 기초유분과 주요 석유화학 제품의 내수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협회는 20일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에 대응해 정부와 공조하고 국내 공급망 안정에 나서겠다는 석유화학 업계의 공동 입장을 공개했다. 이번 입장문은 협회를



나프타에 이어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석유화학 원료 7종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된 지난 15일 경기 안산시의 한 중량제 봉투 등 비닐 생산 업체에서 직원이 폴리에틸렌 원료를 점검하고 있다.

중심으로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LG화학, 한화솔루션, SK지오센트릭 등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이 참여해 마련됐다. 협회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내

산업 전반의 공급망 부담이 커진 만큼 나프타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설비 가동률을 최대한 높여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유분과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주요 제품의 내수 공급을 우선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나프타 외에도 LPG, 콘덴세이트 등 대체 원료 확보를 병행해 공급 차질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와 생활품, 핵심 산업 소재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품목은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망 관리 강도를 높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가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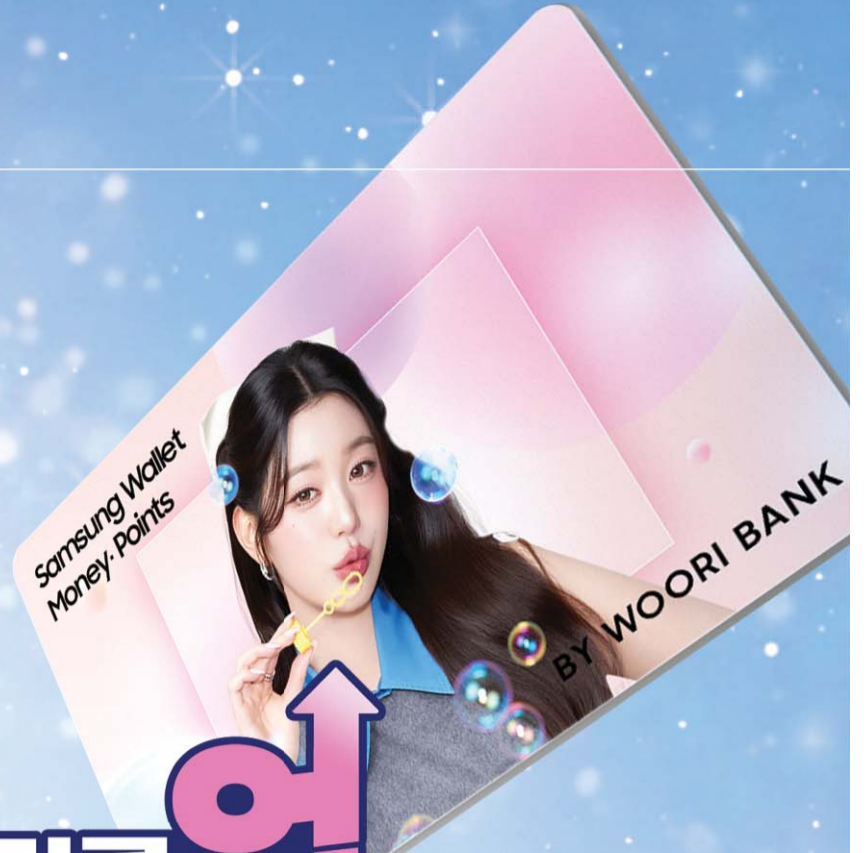
/원관희 기자 wkh@



metro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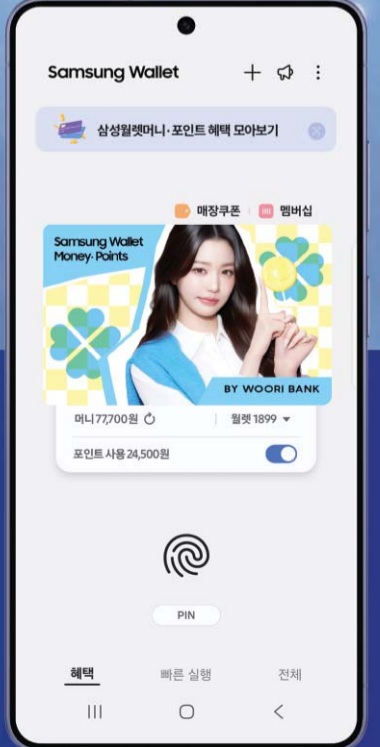
금리를 업턴 포인트로



우리은행 | SAMSUNG Wallet

세상에 업턴 우리 통장 만의 혜택

삼성월렛 안에
원영이를
담아봐



삼성월렛머니 우리 통장
최고 금리 연 3.5%
(기본 연 0.1%, [2026.03.10 기준, 세전],
최고 금리 한도 2백만원)

삼성월렛머니 우리 적금
최고 금리 연 7.5%
(기본 연 2.5% [2026.03.10 기준, 세전])

삼성월렛머니 결제 시
삼성월렛머니 우리 통장 연결하면
최대 11% 포인트 적립
(조건 충족 시, [추가 적립 이벤트 기간
[2026.03.13~2026.04.30]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삼성월렛머니 우리 통장>
- 상품명: 삼성월렛머니 우리 통장
- 기간제한: 무제한 (연도별 또는 월별, 우리WON생리)
- 대상: 14세 이상 성인의 개인 (한인계좌)
- 단: 14세 이상 17세 미만인 경우, 비대한 실령인종이 아닌(단) 전국 우리은행 영업장에서만 상품 가입 가능
- 금리: 최고 연 3.5% - 기본 연 0.1% (사: 2026.03.10 기준, 세전)
- 특징: 삼성월렛머니 서비스 연결 시 우대금리 제공
- 연이자 면 0.1%
- 우대금리: 삼성월렛머니 서비스 연결 시 매일의 최종 잔액 중 2백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만 해당 기간 동안 우대금리 및 특별금리를 제공함. 가입 후 3년 초과 후에는 우대금리를 제공하지 않음
- 가입 후 3년 이내: 삼성월렛머니 서비스 연결 유지 시 연 2.4%p
- 단: 2026.03.10까지 가입 시 연 0.9%p 특별금리 추가 제공
- 가입 후 3년 이내: 삼성월렛머니 연결 유지 시 연 0.9%p
- 이자 지급 시: 예금의 이자 결산은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실시하며, 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영업일)에 대체하여 그 다음날 (영업일)에 실시함
- 이 계좌에 입출, 가입류 등이 발생할 경우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적립 연금>
- 삼성월렛머니 안에
- 삼성월렛머니는 삼성 월렛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일 경우입니다.
- 삼성월렛머니는 본인 명의 계좌의 연결을 통해 충전할 수 있습니다.
- 최소 충전금액은 2만원이며(1만원의 경우 만원), 결제금액이 부족할 경우 단위로 자동충전됩니다.
- 적립 혜택 산: 는 토요일은 월액(40) 최대 11% 포인트 적립
- 기본 적립: 월액(18), 오로(10) 0.5%
- 추가 적립: * 기간: 2026.03.13(금) - 2026.04.30(목)
- * + 15%: 우리은행 계좌를 주 사용 계좌로 설정 후 결제 * 최대 적립 금액: 75만원 (일회 최대 최대 15만원)
- * + 30%: 삼성월렛머니 우리 통장을 주 사용 계좌로 설정 후 결제 * 최대 적립 금액: 22만원 (일회 최대 최대 15만원)
- * + 50%: * 조건을 만족하는 고객이 토요일에 결제 * 최대 적립 금액: 22만원 (일회 최대 최대 15만원)
- * 추가 적립: * + 15%: * 조건을 만족하는 고객이 토요일에 결제 * 최대 적립 금액: 22만원 (일회 최대 최대 15만원)
- * 주 사용 계좌 설정 방법: * 전액 > 내 지갑 > 내 - 포인트 > 연결된 계좌 > 주 사용 계좌 설정
- * 추가 적립: * + 2026.36 초기 적립 (삼성월렛머니 우리 통장 이벤트 시즌 기간)에서 이미 본 이벤트의 초기 적립 혜택을 받은 고객은 이번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공통 안내 사항
- * 본인 명의 은행 계좌를 통해 내부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 삼성월렛머니 서비스 및 우리은행 이벤트 관련 문의 사항은 우리은행 삼성 월렛 고객센터(☎1544-8484) 이용 안내(09-18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로 연락 바랍니다.

<상용유리사항>
- 일반금융서비스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9조 제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 * * 이 예금(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년간 "유리이자" (본 은행의 예대 보호상용과 합산) 보호됩니다.
- * *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이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연합회 상리월 제 2026-068035(2026.03.24~2027.03.23)
은행가사인 상리월 2026-2195(2026.03.19~2026.12.31)



이벤트 바로가기

정원오, ‘용광로 선대위’ 출범… 오세훈 10년 심판 전면화

상임선대위원장에 이인영·서영교 박주민·전현희 등 경선 경쟁자 합류 전략·정책·홍보 등 체계 세분화 도시계획 등 전문가 중심 정책 설계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용광로·서울 비전·오세훈 심판’을 3대 기조로 하는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정원오 후보의 상임 선대위원장은 이인영·서영교 의원이 맡기로 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선대위 수석대변인인 이정현 민주당 의원과 총괄선대본부장 이해식, 종합상황본부장·지원본부장인 채현일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원팀 통합 정신을 구현하고 실무 전문가들 역량을 총결집했다”며 “서울 최다선(5선) 이인영, 여성 4선 서영교 의원이 선거를 총괄하는 상임선대위원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정원오 후보 선대위는 오세훈 시장 시정을 평가하기 위해 ‘오세훈 10년 심판본부’를 별도로 설치했다.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출신 천준호 의원이 수장, 경찰 출신 변호사인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이 부분부장을 맡는다.

이해식 의원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회 출입기자 프레스데이’에서 시작 전 선거캠프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정현 의원 등과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식 의원, 정 후보, 채현일 의원, 이 의원. /뉴시스

는 오세훈 10년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서울 지역 의원들도 오세훈 실정 심판을 위한 공격적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오 시장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신도시개발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고자 했던 오 후보의 공약은 ‘빌 공(空)자 공약’이었다”며 “정 후보는 착착 기획, 착착 개발을 통해 기본 계획, 지구 지정뿐 아니라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등 중요 핵심적 절차에 있어서도 빠르게 하나씩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은 “오 시장 측에서 (정

후보에 대해) 박원순 시즌2라고 했는데 그건 건강부회”라며 “오 시장이 5선을 한다면 ‘윤석열 시즌2’라고 할 수 있고 서울 시민들이 주인 되고, 서울을 위해 이재명 정부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후보 선대위는 서울 비전 설계를 위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을 영입했다. 대표적으로 김경민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가 ‘글로벌 G2 서울비전위원회’를 맡는다. “강남북 균형 발전과 글로벌 G2 도시로의 도약을 이끌 비전을 설계한다”는 것이 선대위 설명이다.

대우건설 전무 출신이자 주택 건설

전문가인 이경섭 전 한화그룹 부사장은 새서울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참여연대 간사 출신 안전걸 민생경제 연구소장은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위원회’, 소설 범도 작가인 방현석 중앙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는 ‘문화예술도시 위원회’를 각각 맡아 정책을 설계할 예정이다.

당내 인사로는 시각장애인이자 당 전국장애인위원장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사회적약자위원회를 맡아 소수자 정책을 만든다. 남인순 의원은 ‘시민주권위원회’를 맡아 국민주권정부 실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서울시장 경선 경쟁자인 박주민·전현희·김영배 의원과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해 ‘용광로 선대위’를 꾸린다. 김영배 의원은 직능총괄본부장, 김형남 전 사무국장은 대변인과 시민참여본부장을 맡는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한정애·남인순·진선미·황희·김영호·진성준·고민정 의원 등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일할 예정이다. 한정애 의원은 인재영입위원장, 황희 의원은 특보단장을 겸한다.

서울 지역구 재선 의원들은 공동선대본부장을 맡는 가운데 캠프 전략총괄본부장은 윤건영, 전략메시지본부장은 박성준, 전략기획본부장은 고민정 의원이

맡는다.

공약과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정책총괄본부는 오기형, 정태호 의원 2인 공동본부장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의사 출신이자 보건정책 전문가인 신현영 전 의원은 부분부장 겸 정책자문단장을 겸해 실무를 지휘한다. 김남근, 박홍배 의원은 공동 제1정책본부장, 김윤 의원과 강청희 강남을 지역위원장은 공동 제2정책본부장을 맡는다.

초선 의원들도 선대위에서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김동아 의원은 유세본부, 한민수의원은 캠페인 본부에서 활동한다. 홍보·뉴미디어본부는 김우영 의원, 한웅현 홍보위원장이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주희 의원은 법률·클린선거본부장, 김영호 의원은 조직총괄본부장을 맡는다. 이용선 의원은 시민사회본부장, 김형남 전 사무총장은 시민참여본부장으로 참여한다.

이외에도 김한나 서초갑 위원장은 여성본부장, 함대건 용산구 의원은 청년본부장으로 선대위에 합류했다. 48개 지역위 선거대책위원장은 서울시장 위원장 직무대행인 최기상 의원이 맡는다.

정 후보 비서실장은 박민규 의원, 고문단장은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맡는다. 이정현 의원은 TV토론 및 언설본부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美 공화당 핵심 인사들과 핫라인 구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방미 성과 발표 백악관·국무부 등과 소통 채널 확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열흘간의 방미 성과로 미국 공화당 핵심 인사들과 실질적인 핫라인 구축을 꼽았다. 또, 미국 측에서 이란 전쟁과 관련한 한국 입장 및 쿠광 사태와 관련된 정부 정책 등에 대해 우려를 잇따라 표했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방미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어렵게 방미를 결정한 것은 이재명 정권의 잇따른 외교 참사로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라며 “지방선거보다 방미가 중요한 게 아니

라 지방선거를 위해서 방미했다”고 방미 배경을 밝혔다.

장 대표는 “백악관과 국무부 등 미국 주요 인사들을 만나 통상 협상 등 산적한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갈 소통 창구도 열었다”고 말했다. 다만, 국무부 누구를 만났느냐는 질문에는 “비공개를 전제로 현안 브리핑과 간담회를 가졌다”며 “외교 관례상 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이란 전쟁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측 여러 주요 인사들은 이란 전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물었다”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진의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미국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을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통상협상 관련 의견도 교환했다고 했다. 장 대표는 “(미국 측은) 쿠광 사태를 비롯한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해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그리고 미국 기업이 중국계 기업에 비해 오히려 차별 받는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이번 방미 일정이 사전에 제대로 조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당에서 분명히 일정을 조율하고 나갔다”며 “미리 조율한 일정 외에도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 추가 일정까지 소화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미 성과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미 국회의사당 앞에서 웃으며 찍은 사진이 공개돼 비판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공식 일정을 마치고 다음 일정을 잠깐 기다리는 사이에 있었던 사진”이라고 해명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李 대통령 지지도 66% 경제·에너지 안보 성과

리얼미터, 취임 후 최고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됐다. 중동 전쟁 상황에서 원유 확보 등 경제·에너지 안보 성과가 지지율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7일 전국 18세 이상 2519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긍정 평가는 65.5%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 대비 3.6%p(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지지도가 60%대 중반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존 최고치는 지난해 7월 2주차 조사 결과인 64.6%였다.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30.0%로 직전 조사에 비해 2.8%p 내렸다. ‘잘 모름’ 응답은 4.5%로 집계됐다.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및 에너지 수급 부족 상황에서 원유를 대량 확보하고, 코스피 6200선 회복 등이 주요 이유라는 게 리얼미터의 설명이다.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 인권 발언, 현직 대통령 최초 세월호 12주기 참석 등으로 중도층과 청년층의 지지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지지도를 살펴보면 인천·경기(69.9%)가 직전 조사 대비 5.2%p 오르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그 외 모든 지역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다만 대구·경북의 경우 2.4%p 올랐지만 지지율은 48.5%로 50% 이하를 기록했다.

/서예진 기자

정청래 “국힘식 표현으로 ‘외교 참사’”

장동혁 대표 방미 일정 두고 비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고향인 보령을 찾아 장 대표의 방미 일정 두고 “국민의힘식 표현으로 말한다면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충남 보령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이같이 말한 뒤 “(미국) 대통령이나 부통령은 못 만났다 하더라도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만날 수 있다”며 “민주당·공화당 하원 외교위원장은

못 만나도 간사는 만나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과거 의원외교 등의 차원으로 방미했던 일을 설명하며 “(저는) 1시간 간격으로 연속 다섯 명의 하원의원을 만났다”며 “그런데 제1야당 대표가 미국에 가서 장기간 체류하며 무엇을 했나”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의 미국 의사당 앞 ‘인증샷 논란’에 대해서는 “보통 일반 관광객들이야 백악관 앞에서 인증샷을 찍고 한다”며 “그런데 의원외교로 가는 경우는 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충남 보령 머드테마파크 컨벤션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른 민주당 지도부도 비난을 이어갔다.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장 대표가 빈손 방미, 화보 정치쇼를 마치고 귀

국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 당원들조차 차라리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전수미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제1야당 대표의 빈약한 외교력에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다”며 “일정 연장의 실체가 결국 ‘뒷모습 사진 한 장’뿐이라는 사실은 스스로 생각해도 창피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초라한 외교 성과를 덮기 위한 이재명 정부를 향한 근거 없는 흠집 내기”라며 “덩 빈 방미 성과와 당내의 사퇴 요구에 직면한 본인의 웅색한 처지부터 냉정하게 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생산적 금융을 실천하며
모두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기업의 도전이 멈추지 않도록
산업의 성장이 이어지도록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이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여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에너지고속도로
- 핵심 성장 산업 지원·K-밸류체인 강화
-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예금금리 2%대 제자리 걸음 속 연 3% 이상 특판상품 관심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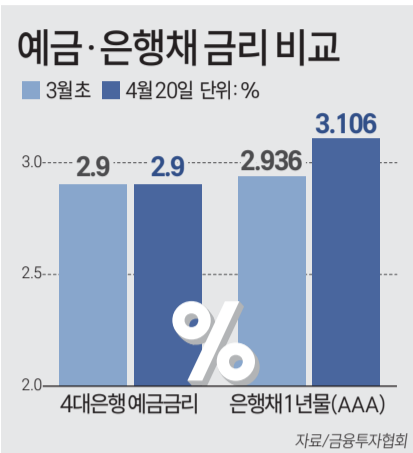
정부, 가계대출 증가율 1%대 묶어 은행, 공격적 예금유치 유인 줄여 전북은행 연 3.11%, 농협 3.10% 부산, 1.85% 우대금리 연 3.20%

예금금리가 대부분 연 3.0% 이하로 떨어지면서 더 높은 금리 상품에 관심이 쏠린다. 은행마다 조건이 까다롭지만 안정성을 갖춘 연 3% 이상의 예금 상품 수요는 여전하다.

은행권의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주요 은행의 예금금리는 여전히 2%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이지만,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높여가며 자금을 조달할 유인이 없다는 입장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12개월 기준 2.85~2.90%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초와 비교해 사실상 제자리 수준이다.

금리가 정체된 배경에는 대출 총량 규제로 은행들이 추가 자금 확보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점이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1%대 수준으로 묶고, 은행의 대출 자산 확대 여력을 제한했다. 은행들은 예금을 공격적으로 유치할 유인이 줄어들었고, 굳이 금리를 높이지 않아도 자금 수요가 유지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은행채 1년물(AAA) 금리는 지난달 초 2.936%에서 이달 17일 기준 3.106%로 뛰었다. 사실상 은행채 금리가 오르고 예금금리가 낮아지는, 은행채 금리가 예금금리를 웃도는 역전현상이 나타난 셈이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서도 일부 고금

리 상품에는 수요가 몰리고 있다. 연 3%금리를 제공하는 예금상품이나 특판상품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이날 기준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전북은행의 JB다이렉트예금통장(1년 만기 기준)으로 연 3.11%(세전이자율) 제공한다. 농협은행의 'NH올원e예금'과 수협은행의 '헤이 정기예금', 카카오뱅크의 정기예금은 각각 연 3.10%를 제공했다.

부산은행의 '더 특판 정기예금'은 세전 이자를 1.85%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3.2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대조건에는 ▲모바일뱅킹 금융정보 및 혜택 알림 동의 우대이율 0.10%포인트(p) ▲신규고객 또는 정기예금 중도해지고객 우대이율 0.40%p ▲특판우대이율 0.50%p(24개월시 0.85%p) 등이 붙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채 금리가 예금금리를 웃도는 상황이지만 가계대출 규제로 자금 수요 자체가 크지 않다"며 "당분간 예금금리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움직이고, 일부 특판 상품 위주로만 3%대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o

‘개인정보 유출’ 롯데카드 제재심 표류

위원 간 법리해석 차이로 미결론 6월까지 확정 결과 만나올 수도 우리·신한카드 제재 속도도 변수

금융당국이 지난해 발생한 297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롯데카드 징계 수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롯데카드 제재 이후 우리·신한카드 제재도 예정된 가운데 두 카드사의 제재 논의 역시 지연될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롯데카드 정보 유출 관련 제재안을 논의했다. 제재심에는 조좌진 전 롯데카드 대표와 정상호 현 롯데카드 대표가 동반 참석했다.

제재심은 오후 5시 30분께 시작해 오후 8시가 넘어서야 종료됐다. 두 시간 넘게 안건을 논의했으나, 일부 사안을 둘러싼 위원 간 법리 해석 차이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앞서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 과징금 50억원 등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영업정지 4.5개월은 지난해 말 발생한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2014년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의 반복 위반 성격으로 반영되면서, 기존 3개월에 1.5개월(50%)이 가중돼 산정된 결과다.

이 같은 상황에서 롯데카드 징계 수위 확정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최종심의 기구가 아닌 만큼 오는 6월까지도 제재 확정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 제재심이 오는 30일인데, 구체적으로 그날 안건을 다시 상정하자는 이야기가 없었다"며 "다음 제재심이 잡혀있기는 하지만 그날 롯데카드에 대한 추가 심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이용자 297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대해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가 입주한 오피스 빌딩 모습. /뉴시스

아직 추가 안건 논의의 일정은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카드의 제재심이 한 달 이상 지연될 경우 우리·신한카드 제재 속도에도 변수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카드 제재 이후 두 카드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심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실제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이 열리기 전 "우리카드 가맹점주 정보 유출에 관한 검사는 끝난 상태"라며 "롯데카드 제재가 끝나는 대로 우리카드 제재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롯데카드를 시작으로 카드업계 전반에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우리카드에서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4월 사이 가맹점 대표자 7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우리카드는 지난해 3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부터 134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신한카드에서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맹점 대표자의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약 19만 건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재선 기자 wotjis4187@

“통화·정책 만으로 한계” 구조개혁 강조

이창용 한은 총재 이임식 “금리 변동 안 시키는 것도 중요 동결기조, 적극적 정책적 판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퇴임하면서 “통화·재정정책만으로는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루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통화정책 상황을 두고 제기되는 ‘딜레마’ 프레임에 대해 “금리를 변동 안 시키는 것도 중요한 결정”이라고 말하며 현재의 동결 기조 역시 적극적인 정책 판단이란 인식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이날 배포한 이임사에서 지난 4년을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 안에서의 시간이 아니라, 그 경계를 끊임 없이 넘어야 했던 시간”이라고 돌아봤다. 취임 직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두 차례의 ‘빅스텝’을 포함해 기준금리를 3.5%까지 끌어 올렸고, 이후에도 부동산 금융 불안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 부채 증가, 비상계입,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변화, 중동전쟁에 따른 환율 급등 등 복합 충격이 이어졌다고 짚었다.

그는 임기 중 성과로 높아진 인플레이션을 주요 중앙은행보다 먼저 2%대 목표 수준으로 되돌린 점을 가장 먼저 꼽았다. 한국형 포워드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시장과의 소통방식을 개선했고, 20편이 넘는 구조개혁 보고서를 통해 정책자문 기능을 강화했다고 자평했다.

이 총재가 마지막으로 남긴 핵심 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열린 이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시지는 구조개혁이었다. 그는 경제구조 변화와 함께 통화·재정정책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데도 정책당국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여전히 높아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기업과 개인, 국민연금 등 거주자 영향이 크게 확대된 만큼, 제도 개선 없이 과거처럼 외환시장 개입이나 금리정책만으로 환율을 관리하려 하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출생과 저성장, 노동·교육 문제 역시 단기 처방보다 구조개혁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호황에 대해서도 단순 낙관론을 경계했다. 최근 경기와 외환시장 상황이 일정 부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은 다행이지만, 동시에 특정 산업 의존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더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

국은행이 앞으로도 교육, 주거, 균형발전, 청년고용, 노인빈곤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를 계속 연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임식 직후 문답에서도 그의 문제의식은 이어졌다. 최근 중동 사태와 미국 변수 등으로 한은이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시각에 대해 그는 “금리를 변동 안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동결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지금 국면에서 선택한 능동적 결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퇴임 직전까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인식도 굽히지 않았다. 그는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부동산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며 “청년층의 주거 문제와 저출산, 사회갈등, 생산적 투자 위축까지 맞물린 구조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내달 수도권 입주 3000세대 ‘공급가뭄’

전국 입주물량 1만1685세대 집계 전년비 33%, 전월비 28% 감소

다음달 수도권 입주 물량이 3000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말까지 추정치를 감안해도 월별 기준 올해 가장 적은 수준이다.

20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5월 입주물량은 1만1685세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만7387세대) 대비 32.8%, 전월(1만6311세대)과 비교해서도 28.4% 감소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3161세대, 지방이 8524세대로 지방 물량이 전체의 73% 가량을 차지했다.

수도권은 전월(8193세대) 대비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며 올해 월별 기준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올해 들어 가장 적은 월별 물량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소단지 3곳이 전부며, 경기와 인천에서도 입주물량이 줄었다.

서울은 3개 단지에서 296세대가 입주한다. ▲송파구 가락동 더샵송파루미스타(179세대) ▲강동구 길동 디아테온(64세대) ▲강동구 천호동 비오르(VIORR)(53세대) 등이다. 규모가 크지 않은 단지들로 서울 내 수요에 미치

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경기권은 5개 단지에서 2064세대가 입주한다. ▲화성시 806세대 ▲안양시 538세대 ▲시흥시 400세대 ▲성남시 320세대 등이다.

화성에서는 봉담중흥S클래스센트럴에듀(봉담읍, 806세대)가 입주하고, 안양에서는 안양자이더포레스트(석수동, 483세대)와 힐스테이트안양팰루스(안양동, 55세대)가 나란히 입주한다. 시흥에서는 시화MTV푸르지오디오션(정왕동, 400세대), 성남에서는 엘리트프세콰스카이(신촌동, 320세대)가 입주 예정이다.

인천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지구 에 위치한 루원시티서한이다음(서구가정동, 801세대) 1개 단지가 입주한다.

지방은 총 8524세대, 13개 단지가 입주한다. ▲경상북도 2888세대 ▲경상남도 1390세대 ▲대전광역시 1349세대 ▲충청북도 874세대 ▲전북특별자치도 873세대 ▲부산광역시 638세대 ▲광주광역시 312세대 ▲대구광역시 200세대 순이다. 경북에 물량이 집중되는 가운데 충청·경남 등지에서 중소 규모 단지 위주로 입주가 예정돼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현대차그룹, 해외 우수인재 만난다

9월 'HMG 테크 토틀런트 포럼' 개최

현대차·기아·모셔널 등 9개사 참여
미래 신기술 분야 우수인재 교류
기술 성과·비전 전시 등 콘텐츠 풍성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우수인재 확보에 적극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9월 17~18일(현지 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핵심 경영층과 함께 미래 신기술 분야 우수인재를 초대하는 교류의 장 'HMG 테크 토틀런트 포럼(Hyundai Motor Group Tech Talent Forum)'을 처음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참여사는 현대차, 현대차 미국법인, 기아, 기아 미국법인, 현대차그룹 미국 기술연구소, 현대차그룹 메타플랫폼아메리카, 보스턴다이나믹스, 모셔널, 포티투닷(42dot) 등 주요 9개 회사이다. 이번 포럼과 연계된 그룹 최초의 통합 채용 프로그램 'HMG 글로벌 테크 토틀런트 채용'도 실시한다.

실리콘밸리의 산 호세 맥에너리 컨

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HMG 테크 토틀런트 포럼에는 현대차 호세 무뇨스 대표이사(사장), 현대차·기아 박민우 AVP본부장(사장), 만프레드 하러 R&D 본부장(사장), 현대차그룹 김해인 인사업장(부사장) 등 핵심 경영층이 기조연설 무대에 올라 우수 인재들을 직접 만난다.

또 포럼은 현대차그룹의 핵심 실무 기술 리더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현대차그룹의 기술 성과와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 등 풍부한 콘텐츠로 준비될 예정이다. 6월 30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할 수 있다.

김해인 현대차그룹 인사실장(부사장)은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모빌리티 리더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미래 기술을 이끌어 나갈 글로벌 기술 인재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은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기술적 협업을 촉진하는 의미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과 연계해 현대차그룹 주요 9개 회사가 시행하는 'HMG 글로벌 테크 토틀

런트 채용'은 이날부터 5월 22일까지 동일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입사 지원서를 접수한다.

채용 모집 분야는 ▲AI ▲로보틱스 ▲자율주행 ▲스마트제조 ▲SW/IT ▲배터리 ▲수소·에너지 등 7개이다. 채용은 ▲지원서 접수(4/20~5/22) ▲서류심사(~6월 중순) ▲면접(~7월 말) ▲최종면접(9월)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면접 대상자는 오는 9월 17~18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개최되는 HMG 테크 토틀런트 포럼에 초청돼 현장에서 최종 면접을 치르게 된다.

박민우 현대차·기아 AVP본부장(사장)은 이번 포럼 및 통합 채용과 관련해 "AI와 자율주행으로 대표되는 미래 모빌리티 경쟁은 단순한 기술 개발만으로 승패가 결정되지 않는다"라며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서로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공유하는 비전이 얼마나 명확한지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라고 강조했다.

ysw@metroseoul.co.kr



metro



LG화학 '차이나플러스 2026' 전시부스 조감도.

/LG화학

K-석화기업, 로봇분야 등 고부가 소재 뽐내

차이나플러스 2026

LG화학 90여종 전략제품 전시
롯데케미칼 'Super EP' 첫 공개
SK케미칼 바이오 소재 전면예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아시아 최대 플라스틱 전시회인 '차이나플러스 2026'에서 고부가 소재 경쟁에 나선다. 로봇·전장·반도체·배터리·의료·재활용 등 성장 산업용 전략 제품을 앞세워 현지 고객사와 접점을 넓히고 스페셜티와 친환경 소재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 전략도 제시할 계획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 롯데케미칼, SK케미칼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차이나플러스 2026'에 참가한다. 차이나플러스는 미국 NPE, 독일 K소와 함께 글로벌 3대 플라스틱·고무 전시회로 꼽히는 아시아 최대 행사다.

세 회사는 이번 전시에서 미래 산업용 고기능성 소재와 재활용 솔루션을 전면예 내세운다. 전장·배터리·전자·생활소재 시장을 겨냥하는 동시에 범용 제품 중심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LG화학은 '산업의 전환을 이끌어온 소재'를 주제로 약 400㎡(121평) 규모 부스를 마련하고 로봇·전장·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90여 종의 전략 제품을 전시한다. 로봇 분야에서는 메탈릭 ABS(고부가합성수지)와 초고강도 PVC(폴리염화비닐), 고굴절 소재를 선보인다. 배터리 안전성을 높이는 소재로는 열폭주 지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SF

B'와 에어로젤 기반 열차단 소재 '넥솔라'를 공개한다. 전장 분야에서는 고풍택·고내열 ASA(고부가합성수지)와 고투명 PC(폴리카보네이트) 소재를,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용 ABS와 PC 소재를 소개한다. 단일 PE(폴리에틸렌) 기반 초박막 포장 필름 소재 '유니커블'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롯데케미칼은 '지속적인 성장 추진력'을 주제로 첨단 산업, 모빌리티, 생활 소재, 리사이클 솔루션 등으로 전시관을 구성한다. 특히 차세대 고기능성 소재인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Super EP)'을 처음 공개한다. 반도체 공정용 정전기방전(ESD) 방지 소재와 반도체·디스플레이 현상액인 TMAH, 초소형 카메라 모듈과 스마트워치 바디에 적용된 Super EP 소재 등을 전시한다. 모빌리티 존에서는 외장 소재와 컬러 디자인 솔루션, 동박·양극박·분리막용 소재·전해액 유기용매 등 리튬이온 배터리 4대 핵심 소재를 선보인다. 난연 솔루션과 배터리 셀 운송·보관용 트레이 소재도 함께 소개할 계획이다.

SK케미칼은 순환재활용과 바이오 소재를 앞세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존하는 솔루션'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자사 소재가 적용된 상용화 완제품 110여 종을 전시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차이나플러스는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고객사에 고부가 소재 경쟁력과 사업 방향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며 "국내 석유화학업체들도 범용 제품을 넘어 스페셜티와 친환경 소재 중심으로 고객 기반을 넓히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삼성SDI, 벤츠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공급

독자 개발 안전성 솔루션 함께 반영
미래 모빌리티분야 전반 협력 확대

메르세데스-벤츠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에 나선 가운데 삼성SDI가 벤츠에 처음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한다. 업계에서는 삼성SDI가 이번 수주를 계기로 프리미엄 완성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히고 향후 전략적 협력 범위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SDI는 20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안다즈 서울강남에서 메르세데스-벤츠와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위한 다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삼성SDI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될 고성능 배터리를 공급한다. 해당 제품에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구현할 수 있는 하이니켈 NCM(니켈·코발트·망간)



오르그 부르저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AG 이사 회 멤버 및 최고기술책임자(CTO·오른쪽), 최주선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이 20일 오전 안다즈 서울 강남에서 배터리 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삼성SDI

소재가 적용된다. 주행거리 확대와 장수명, 고출력 성능을 구현하는 동시에 삼성SDI가 독자 개발한 안전성 솔루션도 함께 반영됐다.

삼성SDI는 지난해부터 메르세데스-벤츠와 협력 논의에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주선 삼성SDI 사장은 취임 이후 메르세데스-벤츠 경영진과 온·오프라인 소통을 이어가며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양사가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삼성 영빈관 승지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주선 사장,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회장 등이 만찬 회동을 가진 점도 이번 계약 성사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당시 양측 경영진은 미래 모빌리티 분야 전반의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전략적 파트너십이 한층 구체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양사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차세대 배터리 선형 개발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 전반으로 협력 관계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원관희 기자 wkh@

LG전자 "스탠바이미, 대화면으로 크게 즐기세요"

32형 '스탠바이미2 맥스' 출시
이동식 스크린 시장 리더십 공고히

LG전자가 시원하게 커진 32형 화면으로 선명해진 4K 화질을 즐길 수 있는, 'LG 스탠바이미2 맥스'를 앞세워 이동식 스크린 시장의 리더십을 강화한다.

LG전자는 히트 상품인 스탠바이미 시리즈의 최신작인 LG 스탠바이미2 맥스를 국내에 본격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LG 스탠바이미2 맥스는 기존 모델의 27형보다 약 40% 커진 32형 터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으며, 4K UHD

(3,840X2,160) 해상도로 QHD인 LG 스탠바이미2보다도 한층 향상된 화질을 구현했다. 11.1.2 채널의 입체 음향으로 별도 스피커 없이도 풍부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

신제품에는 전자보다 더욱 향상된 3세대 알파8 AI 프로세서가 탑재됐다. AI가 영상과 사운드를 분석·보정해 콘텐츠에 최적화된 화면과 서라운드 사운드를 선사한다. 알파8 AI 슈퍼 업스케일링 4K 기능은 해상도가 낮은 영상도 4K 고화질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해준다.

LG 스탠바이미만의 차별적인 장점

인 이동성과 편리한 사용성도 더욱 강화됐다.

진정한 무선 활용을 위해 필수적인 내장 배터리 용량은 144Wh로 늘어, 전원 연결 없이 최대 4시간 30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화면부는 버튼 하나로 손쉽게 스탠드와 분리해 태블릿처럼 자유롭게 활용할 수도 있다. 전용 액세서리인 원클릭 스탠드를 활용해 가로·세로 등 보고 싶은 방향으로 세우고, 스트랩 액세서리로 편리하게 휴대하거나 벽에 걸어 액자 또는 시계로도 연출 가능하다.

/차현정 기자 hyeon@

삼성전자, 'EHS 히트펌프 보일러' 선보

공기열·전기 활용... 탄소저감 효과

삼성전자는 정부의 난방 전기화 보급 정책에 맞춰 공기열과 전기를 활용해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공기열 기반의 'EHS 히트펌프 보일러'를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EHS 히트펌프는 자연 상태의 공기열을 활용해 투입되는 전기 에너지보다 4배 이상 많은 열을 만들어 실내 난방과 온수에 활용할 수 있는 난방 제품이다. 에너지 효율이 100% 미만인 기존 화석 연료 기반 보일러와 비교해 전기 소비와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 이 제품은 고효율 냉매 압축 기술로 발생시킨 열 에너지를 활용해 영하 15도에서도 최대 70도의 고온수를 공급할 수 있다.

실외기 내부에는 전기 히터와 동파 방지 밸브가 탑재돼, 열교환기 동파와

배관 결빙을 방지했으며 제품 하단에도 배수를 돕는 히터가 추가로 탑재됐다.

이를 통해 영하 25도의 혹한 환경에서도 출수온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파로 인한 기기 고장을 예방할 수 있다.

신제품은 열교환 면적을 극대화한 대용량 열교환기가 탑재돼 에너지 효율이 높다.

특히 이번 제품에는 가정용 에어컨 등 냉난방기 제품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R410A' 냉매보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68% 낮은 R32 냉매를 적용했다.

신제품의 제어기에는 7형 터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됐다. 디스플레이를 통해 난방, 급탕 등 히트펌프 시스템 전체를 한눈에 모니터링하고 손쉽게 제어할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경영혁신 中企 10곳 중 7곳 ‘상시 인력난’... “정년연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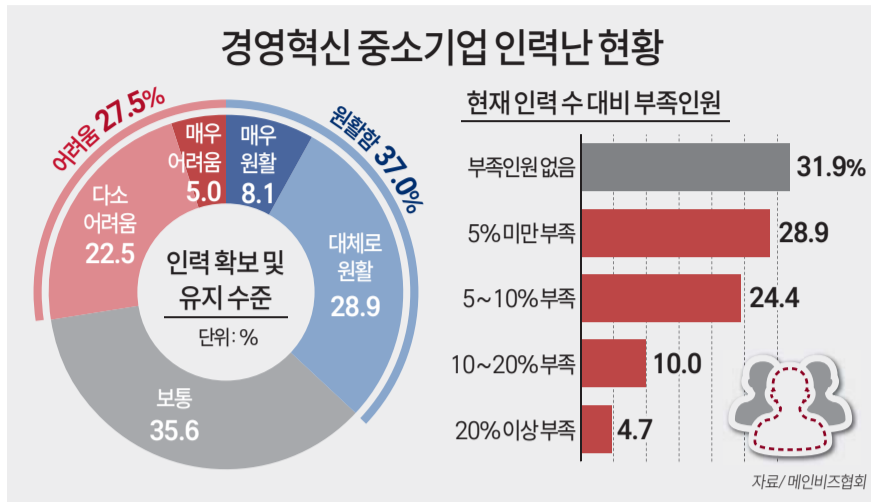
메인비즈協, 인증기업 360곳 조사
 中企 인력수급 원활도 53.1점 그쳐
 정년 연장엔 응답기업 89% 찬성
 숙련인력 유지 중심 대응체계 강조
 고용유지 지원·세제혜택 확대 주문
 외국인 숙련인력 활용 제고 제시

경영혁신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상시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곳 중 1곳은 인력 공백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 ‘인력수급 원활도’는 100점 만점에 53.1점에 머무를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년연장에 대해선 88.6%가 찬성했다.

이같은 내용은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가 메인비즈 인증기업 36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력구조 재편과 정년연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20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8.1%가 상시적인 인력 부족 상태로 나타났다. ‘부족하지 않다’는 31.9%로 절반



에 못미쳤다. ‘10% 이상 부족’한 경우는 제조업의 경우 전기·전자(16.7%), 식품·섬유(20%)가, 비제조업은 정보통신업(23.8%)과 건설업(19.1%)이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했다. 특히 9인 이하 소규모 기업은 ‘10% 이상 부족’ 비중이 25.2%로 높아 소규모 기업일 수록 인력 기근 현상이 심각한 모습이다.

인력 공백(부족) 기간도 ‘6개월 이상’이 24.5%에 달하는 가운데 이를 포함해 ‘3개월 이상 지속’ 비중이 42.9%로

나타났다. 혁신기업 10곳 중 4곳은 인력을 뽑기 위해 3개월 넘게 기다려야하는 실정이다.

‘인력수급 원활도’가 50점을 겨우 넘고 있는 가운데 필요 인력 확보 상황에 대해선 ‘원활’이 37%, ‘보통’이 35.6%, ‘어렵다’가 27.5%로 각각 나타났다. 비제조업(22.2%)보다는 제조업(34%)의 인력수급 어려움이 더 많았다.

인력난 심화 원인은 ▲정년 인구 감소(39.2%) ▲낮은 임금 및 복리후생(38.4%) ▲인건비 부담(34.3%) 등 기

업의 내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년 연장에 대해선 응답기업의 절대 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숙련 인력의 기술·노하우 유지’(78.7%)가 1순위 이유로 꼽혔다.

메인비즈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직접 지원이 우선되면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기업이 더욱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정년 연장과 더불어 임금·생산성 구조 개편 등 임금체계 변화도 이뤄져야한다는게 대체적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협회는 단기적으로는 고용유지 비용 지원과 세제 혜택, 행정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숙련인력 유지 중심의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와 디지털 전환(DX), 외국인 숙련인력 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인력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LS일렉트릭

직류 솔루션 앞세워

북미 데이터센터 공략

데이터센터월드서 DC 솔루션 공개

LS일렉트릭이 차세대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로 주목받는 직류(DC) 솔루션을 앞세워 북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계 최대 데이터센터 전시회에 참가해 직류 전력 솔루션과 배전 시스템, 자동화 제품을 대거 선보이며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LS일렉트릭은 20일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워싱턴DC 월드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데이터센터월드 2026(Data Center World 2026)’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 LS일렉트릭은 ‘한계를 넘는 스케일, 차이를 만드는 혁신(Innovation at Scale)’을 주제로 데이터센터 맞춤형 전력·자동화 토털 솔루션을 공개한다. 전력 부문에서는 데이터센터용 직류 솔루션을 비롯해 UL 인증 배전 시스템, 전력분배장치(PDU), 원격전력패널(RPP) 등을 선보인다. 자동화 부문에서는 데이터센터 공조 시스템에 적용되는 고효율 인버터 H100과 콤팩트 인버터 SP100 등을 전시한다.

/원관희 기자 wkh@

LG이노텍, 유럽서 ‘차량용 와이파이7 모듈’ 수주

유럽 메이저 부품사에 1000억 규모
 내년 첫 양산, 글로벌 완성차에 탑재
 초고속·고신뢰 통신으로 시장 공략

LG이노텍이 최첨단 와이파이 기술을 적용한 ‘차량용 와이파이7 통신 모듈’을 유럽 메이저 부품 기업에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수주 규모는 약 1000억원 수준이다. 제품 첫 양산은 2027년부터다. LG이노텍의 ‘차량용 와이파이7 통신 모듈’은 독일 전자부품 고객인 생산하는 AVN(Audio·Video·Navigation)에 내장된 형태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최종 공급될 예정이다.

LG이노텍의 ‘차량용 와이파이7 통신 모듈’은 기존 와이파이6E(6세대 확장)보다 채널당 대역폭(전파가 이동하는



LG이노텍의 최첨단 ‘차량용 와이파이7 통신 모듈’

길이 넓어)이 두 배 늘어난 320MHz 초광대역폭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 전송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졌다.

제품에는 4K-QAM(직교진폭변조) 기술이 적용됐다. QAM은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 무선으로 전송하는 기술을 뜻하는데, QAM 값이

높을수록 한 번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와이파이7은 기존 대비 4배 높은 4096(4K) QAM을 지원한다.

또한 LG이노텍은 다중안테나(MIMO) 기술을 활용하여, ‘차량용 와이파이7 통신 모듈’에 2개의 안테나를 탑재했다. 안테나가 한 개만 있을 경우 놓칠 수 있는 신호를 모두 잡아줄 수 있어,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LG이노텍의 ‘차량용 와이파이7 통신 모듈’은 퀄컴의 통신칩, RF회로, 안테나 등 150여개의 부품이 내장돼 있다. 모듈의 크기는 신용카드의 6분의1 수준으로 작고 슬림하다.

나아가 이 제품은 영하 40℃부터 영상 105℃까지 극한의 외부 온도에서도 내구성을 유지한다.

LG이노텍은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유럽·일본 완성차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용 와이파이7 통신 모듈’ 프로모션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AVN를 넘어 RSE(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TCU(자동차용 통신 장비), DCU(통합제어시스템) 등으로 ‘차량용 와이파이7 통신 모듈’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혁수 사장은 “특히 차량용 AP 모듈 매출이 올해 4분기부터 본격 발생하는 등 모빌리티솔루션 매출이 당분간 연평균 20%씩 늘어나며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LG이노텍은 앞으로도 차별화된 주행경험을 제공하는 혁신 솔루션을 지속 선보이며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한일 레미콘업계, 협력 강화로 돌파구 모색

정례 간담회서 실질협력 모델 마련

한국과 일본 양국의 레미콘 업계가 정례 교류를 본격화하고 업계 현안 공동 대응 등에 나선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본전국생콘크리트공업조합연합회 대표단과 ‘2026 한·일 레미콘연합회 간담회’를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일본 도쿄에서 체결한 ‘2026 한·일 레미콘 산업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이행 차원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한일 레미콘 판매구조 ▲레미콘산업 구조조정과 시장안정

화 방안 ▲원자재 수급 및 가격제도 ▲기술혁신과 탄소중립 대응 ▲인력 수급 및 품질관리 시스템 관련 의견들이 오갔다.

특히 일본의 공동판매 운영사례, 납품대금연동제, 전국통합품질관리제도 등을 한국과 비교하고, 양국 간 제도적 시사점 공유를 통한 향후 협력 가능성도 모색했다.

배조용 회장은 “이번 간담회가 양국 레미콘 산업이 직면한 위기 속에서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례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중동전쟁 피해 中企에 5500억 추가 지원

중기부, 경영안정·수출지원 추경 편성

정부가 5500억원의 정책 자금을 투입해 중동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추가 지원한다.

20일 중소기업부에 따르면 추가 경정예산으로 확보한 5500억원은 ▲긴급경영안정자금(25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1000억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1500억원) ▲재창업자금(500억원)으로 구성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에 경영 애로 사유로 ‘중동전쟁 피해기업’을 신설했다. 중동 지역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석유화학 공급망 중소

기업 등이 대상이다. 일회용 주사기, 어망, 부표 같은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대표적인 예다.

이번에 신설한 경영애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원 조건도 완화한다. 우량기업 기준(자본 200억원 또는 자산 700억원 초과기업 등에 대한 제한)과 경영 애로 규모 요건(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시 신청·접수로 지원 속도도 높인다.

중소기업의 수출국 다변화를 뒷받침하고자 신시장진출자금 규모도 3164억원에서 4164억원으로 증액한다. 대외 불확실성으로 기존 수출국으로의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때도 우량기업 기준 예외를 적용한다.

/김승호 기자

한화큐셀

태양광 넘어 재활용까지

토털 솔루션 기업 도약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서 기술 총출동

한화큐셀이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서 고효율 태양광 모듈과 차세대 탠덤 셀, 에너지 관리, 폐모듈 재활용 사업을 선보이며 토털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의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이번 전시에서 태양광 모듈 라인업과 에너지 시스템 솔루션, 폐모듈 재활용 사업 등을 소개한다. 2029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 시제품도 함께 공개해 차세대 기술 경쟁력도 내세운다.

전시장에는 주력 제품인 큐트론(Q.TRON)을 포함한 고효율 모듈과 영농형, 수상형 등 국내 시장 특성에 맞춘 유희부지 솔루션이 함께 배치된다. 큐트론은 N타입 웨이퍼를 적용한 탑콘(TOPCon) 모듈로 발전 효율을 높인 제품이다.

/원관희 기자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자연어 한 줄에 디자인 똑딱... 빅테크, '그래픽 AI' 경쟁 격돌

'바이브 디자인' 시대 전환

오픈AI, 新 이미지 생성 AI 선별 예정
非영어권 언어 렌더링 장벽 허물어
구글, '나노바나나 2' 압도적 성과
앤스로픽, '클로드 디자인' 공개
디자인 초안부터 실제 구현까지
어도비·캔바 등도 AI 플랫폼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에 따라 디자인의 패러다임이 자연어 명령만으로 높은 수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구현하는 이른바 '바이브 디자인(Vibe Design)' 시대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사용자가 추구하는 분위기와 맥락을 AI가 파악해 결과물을 내놓는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그래픽 AI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20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잇따라 그래픽 생성 AI 신제품을 공개하며 '바이브 디자인'을 차세대 핵심 경쟁력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오픈AI는 21일(현지시간) 새로운 이미



자연어 명령만으로 수준 높은 그래픽을 구현할 수 있는 '바이브 디자인'을 둘러싸고 빅테크들이 잇따라 격돌하고 있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지 생성 AI 도구를 출시할 예정으로, 업계에는 최근 AI 블라인드 테스트 플랫폼 '아레나 AI'에 올라온 '덕테이프(Duck-Tape)'를 해당 모델로 추정하고 있다.

덕테이프는 그간 이미지 생성 AI의 고질적 난제로 꼽혔던 한글 등 비(非)영어권 언어의 렌더링 장벽을 완벽에 가깝게 허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존 모델들이 한글 문자를 입력할 때 글자가 뭉개지거나 오타가 빈번했던 것과 달리, 덕테이프는 복잡한 문장은 물론 간판, 말풍선, 손글씨 노트까지 오류 없이 구현한다.

업계에서는 덕테이프가 생성한 광고 시안의 품질이 전문 디자이너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오픈AI가 연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실적 반등의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8월 '나노바나나(Nano Banana)' 시리즈를 출시해 이미 바이브 디자인의 정수를 보여줬다. 최신 모델인 '나노바나나 2'는 제미니의 실제 세계 지식 기반을 활용하고 웹 검색 기능을 통해 최신 정보나 특정 장소, 실존하는 인물 등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다. 머리카락 한 올, 피부 질감, 복잡한

패턴의 직물 등 전문가급 사진에서 볼 수 있는 디테일을 구현하며 실사 사진부터 유화, 3D 렌더링, 픽셀아트, 인포그래픽 등을 넘나든다. 나노바나나는 이미 2억 건 이상의 이미지 편집을 수행하며 앱스토어 1위를 기록하는 등 실질적인 서비스 점유율 면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다.

앤스로픽 또한 지난 17일 시각디자인과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수 있는 도구 '클로드 디자인'을 새롭게 공개했다. 최신 AI 모델인 '클로드 오픈스 4.7'을 기반으로 상위 멤버십 사용자를 시작으로 제공되고 있다. 클로드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어로 설명한 디자인을 AI가 초안을 생성한 뒤, 사용자가 추가 대화와 주식, 직접편집, 슬라이더 조정 등을 통해 결과물을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핸드오프(Handoff)' 구조로 완성된 디자인을 하나의 패키지로 정리해 AI 코딩 도구인 클로드 코드에 전달, 실제 구현까지 가능하다.

생성형 AI 기업들에서 연이어 출시되는 그래픽 AI 툴들에 전통적인 디자인 툴들도 AI로 향전하고 있다.

어도비는 생성형 AI '파이어플레이'

를 단순한 도구를 넘어 '에이전트 크리에이티브' 시스템으로 진화시키며 대응에 나섰다. 어도비가 최근 공개한 '파이어플레이 AI 어시스턴트'는 포토샵, 프리미어, 일러스트레이터 등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앱 전반의 복잡한 단계 워크플로우를 스스로 조율한다. 사용자가 일상적인 언어로 결과물을 설명하면 AI가 각 앱의 기능을 호출해 작업을 완수하는 방식이다. 이는 앱과 앱 사이의 벽을 허무는 '통합 실행력'을 핵심으로 하며, 창작자가 방향을 제시하면 AI가 실제 실행을 담당하는 새로운 협업 모델을 제시했다.

캔바(Canva)는 '캔바 AI 2.0'을 통해 디자인 플랫폼에서 AI 플랫폼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선언했다. 캔바의 차별점은 아이디어 구상부터 최종 결과물 완성까지 아우르는 '엔드투엔드(End-to-End)' 솔루션에 있다. 캐머런 애덤스 캔바 CEO는 "대다수 AI 도구가 일회성 이미지 생성에 그치는 것과 달리, 캔바는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의도 라우팅' 기술을 통해 수정과 편집이 가능한 살아있는 디자인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seo@metroseoul.co.kr



삼성SDS,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완료

(기업자원관리)

시스템 중단 시간 최소화 기술 적용
기존 140시간 → 34시간으로 감소
시스템 성능·데이터 운용 효율 개선

삼성SDS는 삼성전기의 차세대 ERP(기업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삼성SDS가 2025년 9월 획득한 '라이즈 위드 SAP 프리미엄 서플라이어' 자격 이후 처음 적용된 사례다.

프로젝트에는 '시스템 중단 시간 최소화(Downtime Optimized Conversion)' 기술이 적용됐다. 시스템 가동 상태에서 데이터 이관과 전환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업무 중단 시간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SAP HANA 데



삼성SDS가 2026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하며 AI 플랫폼·에이전트와 클라우드 사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 성장 동력 강화에 나섰다. /삼성SDS

이터베이스 기준 8.5TB 규모 데이터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업무 중단 시간은 기

존 140시간에서 34시간으로 감소했다.

차세대 ERP 도입에 따라 시스템 성능과 데이터 운용 효율도 개선됐다. 데이터 불륨 관리(DVM)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용량은 8.5TB에서 5.5TB로 축소됐으며, 제조·재무·원가 등 주요 영역의 처리 성능 개선으로 업무 효율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SDS는 이번 사례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ERP 전환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현재 서비스·유통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삼성전기 측은 이번 구축을 통해 ERP, MES, SCM 등 분산된 데이터를 단일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하고 실시간 분석 환경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K브로드밴드는 사내 구성원 대상으로 본사(서울 중구 소재)에서 'AI Agent Lab' 과정을 상시 운영 중이다. 과정에 참여한 SK브로드밴드 구성원이 직접 에이전트를 만들고 있다. /SKB

SKB, 전 구성원 대상 AI 집중교육 실시

10월까지 'AI 에이전트 랩' 운영
중급 AI 역량 인력, 400명까지 확대

SK브로드밴드는 2026년 조직문화 핵심 키워드로 'AI와 일하기'와 '다이너믹 SKB'를 제시하고, 전 구성원의 AI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해 AI 레벨 인증제 도입과 자율 학습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를 AI를 실제 업무 성

과로 연결하는 'AX(인공지능 전환) 추진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3월부터 10월까지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AI 집중 교육 과정 'AI 에이전트 랩'을 운영한다. 현재 약 9% 수준인 중급 이상 AI 역량 보유 인력을 20% 수준인 400명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전 직원이 초급 과정까지 이수하도록 해 조직 전반에 AI 활용 기반을 확산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구글 클라우드, 국내기업과 '에이전트 AI' 전환 가속

카카오뱅크·CJ ENM 등과 협력

구글 클라우드가 '에이전트 AI' 전략을 앞세워 카카오뱅크, CJ ENM, 메가존소프트 등 국내 기업과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을 본격화한다.

구글 클라우드는 2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22일 개막하는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026'을 앞두고 국내 주요 고객 및 파트너의 생성형 AI 도입 성과를 발표했다. 단순 대화형 AI를 넘어 복잡한 업무를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트 AI' 중심으로 기술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루스 선 구글클라우드코리아 사장은 "한국은 글로벌 인공지능 혁신의 핵심 거

점"이라며 "국내 기업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 혁신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제미니가 엔터프라이즈를 도입해 전사 생산성 혁신에 나섰다. 약 1800명의 임직원이 문서 분석 자동화, 시장 분석, 보고서 작성 등 업무에 맞춘 AI 도구를 활용하며 협업 효율을 높이고 있다. 특히 금융 규제 환경을 고려해 데이터 접근 권한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구조를 적용해 보안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Google Workspace)와의 연계를 통해 업무 환경 전반의 디지털 전환도 추진한다.

CJ ENM은 구글 클라우드와 협력해

콘텐츠 제작 전반에 인공지능을 적용한다. 영상 생성 모델 '비오(Veo)'와 이미지 생성 모델 '이마젠(Imagen)'을 활용해 촬영 구도와 움직임 구현 등 제작 기술을 고도화한다. AI 단편 영화 '엠호텔'과 애니메이션 '갯비기' 등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드라마와 영화 등 전 영역으로 인공지능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메가존클라우드의 관계사인 메가존소프트는 구글 클라우드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생성형 AI, 데이터 분석, 보안 분야 중심으로 기업 고객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별 맞춤형 AI 솔루션을 통해 기업이 시험 단계에서 실제 운영 단계로 빠르게 전환하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최빛나 기자 vlna@

네이버, 카페 내 위치추적기 거래 관리 강화

카페 서비스 공지 통해 안내
스토킹 등 강력범죄 악용 차단

네이버가 위치추적기 상품의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해 카페 서비스 내 거래 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네이버는 20일 카페 서비스 공지를 통해 위치추적기 상품에 대한 관리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위치추적기가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용자 보호와 안전한 플랫폼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위치추적기는 GPS 기반으로 사람이나 물건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물류 관리와 미야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그러나 이를 악용한 사생활 침해와 범죄 사례가 증가하면서 플랫폼 책임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네이버는 앞으로 카페 내 위치추적기 관련 상품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타인의 동의 없는 위치 추적을 전제로 하거나 오용 우려가 있는 게시물에 대해 판매 중지와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적용한다. /최빛나 기자

미래에셋운용, 반도체 커버드콜 ETF 출격... 인컴 투자 새판

반도체주 투자·커버드콜 전략 결합
삼전·하이닉스 콜옵션 직접 매도
시장 상황에 따라 옵션 전략 조정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반도체 산업의 성장성과 월 단위 현금흐름을 결합한 ETF를 선보이며 투자 전략 확장에 나섰다. AI 확산으로 구조적 성장 기대가 커지는 반도체 업종에 인컴 전략을 접목한 상품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 정의현 본부장은 20일 웹세미나를 통해 “TIGER 반도체TOP10커버드콜액티브 ETF(상장지수펀드)는 국내 주식의 개별 종목 옵션을 활용한 첫 커버드콜 ETF”라고 밝혔다. 해당 ETF는 21일 상장 예정이다.

TIGER 반도체TOP10커버드콜액티브 ETF는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에 집중 투자하면서 커버드콜 전략을 결합해 성장과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구조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국내 반도체 커버드콜 ETF

상품명	TIGER반도체TOP10커버드콜액티브 ETF
상품 특징	'국내 반도체 TOP10' 투자 + 개별주식 옵션 활용 '월배당'

코스피200의 핵심성장 동력 '반도체'

2026년 코스피내 반도체 순이익 비중은 50% 이상
반도체는 국내 증시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

개별주식 옵션을 활용한 액티브 커버드콜 전략

개별 주식 옵션을 활용해 높은 프리미엄을 추구하며 시장 전망에 따라 탄력적으로 커버드콜 비중 조절

옵션 프리미엄으로 완성하는 비과세 현금흐름

분배금 재원인 '옵션 프리미엄'은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절세효과 가능

자료/미래에셋자산운용

시장 환경에 따라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점도 특징이다.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상승이 기대되는 국면에서는 옵션 매도를 줄여 주가 상승을 최대한 반영하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는 매도 비중을 높여 프리미엄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정 본부장은 “이번 상품의 가장 큰

의미는 국내 주식 개별 종목 옵션을 활용한 커버드콜 ETF가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데 있다”며 “기존 국내 커버드콜 ETF들은 코스피200 지수 옵션을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방식에 머물렀지만, 이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개별 주식 콜옵션을 직접 매도한다”고 설명했다.

개별 종목 옵션을 활용하면서 프리미엄 수익도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는 “개별 종목은 지수보다 변동성이 높아 동일한 만기 구조의 경우 프리미엄도 훨씬 크다”며 “올해 3월 기준 삼성전자 월간 옵션 프리미엄은 약 8.5%, SK하이닉스는 약 10%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옵션 전략을 조정하는 ‘액티브’ 운용도 차별점으로 꼽힌다. 정 본부장은 “‘액티브’라는 명칭처럼 옵션 매도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한다는 점도 차별점”이라며 “변동성이 낮아지며 반도체 상승이 전망되는 국면에서는 옵션 매도를 줄이거나 중단해 주가 상승에 온전히 참여하고 횡보나 변동성이 높아지는 하락 국면에서는 매도 비중을 높여 프리미엄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상품 출시 배경에는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성장 전망이 자리한다. 그는 “AI 에이전트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방

해야 하는 구조상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구조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실제 미국 운용사 라운드힐이 이달 초 상장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의 메모리 반도체 ETF는 2주 만에 순자산 1조2천억원을 돌파해 외국인 자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톱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세제 측면에서도 투자 매력에 부각된다. 정 본부장은 “세금 측면에서도 국내 옵션 프리미엄 수익은 비과세여서 분배금의 대부분이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종합과세·건강보험료 부담 없이 매달 현금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며 “매월 말 분배하는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ETF와 함께 보유하면 한 달에 두 번 높은 비과세 비중의 분배금을 받는 포트폴리오 구성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한국투자증권, IRP 가입자·적립금 급증

가입자 52만명, 적립금 8.8조
디지털 투자 환경 강화 등 요인

한국투자증권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지난 1분기 기준 52만 3000여 명을 기록하며 증권업계 내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퇴직연금 직접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가운데 상품 경쟁력과 수익률 차별화에 따른 고객 유입이 가속화된 결과다.

작년 말 47만 3000여 명이던 IRP 가입자는 불과 3개월 새 5만 1000여 명 늘어나며 50만 고지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IRP 적립금도 7조 4302억 원에서 1조 3833억 원 증가한 8조 8135억 원을 기록했다. 적립금 증가율은 18.6%로 전체 금융권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압도적인 수익률이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됐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디플트옵션 주요 현황’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의 디플트옵션 ‘적극투자형 BF1’ 상



한국투자증권.

품은 8개 분기 연속 증권업계 수익률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최근 1년 수익률은 26.62%에 달한다.

투자 편의를 위한 디지털 환경 조성도 힘을 보탤 전망이다. 최근 대세가 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수요를 감안하여 고객이 원하는 주가와 금액만큼 상장지수

펀드(ETF)를 자동으로 매수할 수 있는 ‘ETF 적립식 자동투자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출시했으며, 이달 14일 기준 965개의 상장지수펀드(ETF) 상품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또한 전문 기업들과 협업해 업계 최다 수준의 로보어드바이저 라인업도 구축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작년 말 연금 관련 조직을 개편하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퇴직연금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형 연금 자산까지 관리 범위를 확장해 고객의 노후를 철저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진 연금혁신본부장은 “퇴직연금 시장 환경이 기존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과 IRP 위주로 재편되면서 운용의 주체인 고객들에게 얼마만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가 중요해졌다”며 “고객 니즈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통합 연금 관리 체계와 컨설팅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하나증권, IRP 수익률 26%로 업계 1위

1분기에만 적립금 17% 이상 증가

하나증권은 개인형퇴직연금(IRP) 원리금보장형 수익률 부문에서 전체 증권사 중 1위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까지 하나증권의 개인형 IRP 1년 수익률은 25.73%로, 전체 증권사 가운데 가장 높았다.

확정기여형(DC) 장기수익률 역시 5년 6.77%, 10년 6.11%를 기록하며 업계 1위에 올랐다.

하나증권의 IRP 적립금은 1분기에만 17% 이상 증가하며 8000억원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하나증권은 이번 성과의 배경으로 체계적인 연금 자산관리 시스템을 꼽았다.

/허정윤 기자

지난해 퇴직연금 시스템을 전면 재구조화하고 고객의 연금 자산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사용자 편의성과 정보 접근성을 크게 개선했으며 오프라인·비대면 고객을 위한 지원 서비스도 강화했다.

하나증권은 올해 상반기 연금펀드 성과 분석 프로세스 마련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인 AI 연금프로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차민정 하나증권 연금전략실장은 “연금계좌는 실시간 상장지수펀드(ETF), 타깃데이트펀드(TDF), 채권, 예금 등 다양한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자산관리로 연금 투자자들의 수익률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화투자증권, 디지털에셋과 블록체인 협력

미래 금융 환경 변화 선제 대응

한화투자증권은 글로벌 금융 특화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디지털에셋(Digital Asset Holdings LLC)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디지털에셋은 골드만삭스, 미국에탁결제원(DDCC), 결제 인프라 기관 유로클리어(Euroclear), 홍콩거래소(HKEX), HSBC 등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채택한 블록체인 ‘캔톤 네트워크(Canton Network)’를 운영하고 있다.

‘캔톤 네트워크’는 유일한 금융 특화

개방형 블록체인으로 금융기관 간 자산 이동과 협력을 자유롭게 하는 상호운용성이 특징이다. 양사는 앞으로 다양한 금융 영역에서 협업 기회를 모색하고, 글로벌 금융 시장 내 디지털 전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발 루즈(Yuval Rooz) 디지털에셋 최고경영자는 “강력한 디지털 혁신 생태계를 보유한 한국은 ‘캔톤 네트워크’ 확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한화투자증권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장병호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장병호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오른쪽 두 번째)와 유발 루즈 디지털에셋 대표(오른쪽 세 번째) 등 양사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캔톤 네트워크’는 글로벌 주요 금융기관들이 검증한 차세대 금융 인프라”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와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미래 금융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정은보, AOSEF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

(거래소 이사장)

아시아 지역 거래소들과 협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사진)이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오세아니아거래소연맹(AOSEF) 연차총회 참석과 글로벌 로드쇼 개최 등을 위해 20일 출국했다.

AOSEF는 아시아 지역 거래소의 협력과 정보교류 확대를 위해 1982년 설립된 단체다. 현재 13개국의 총 17개 거래소가 회원으로 참여 중이다.

오는 22일 열리는 이번 연차총회에는 홍콩거래소와 일본거래소, 상해·선전거래소 등 아시아 주요 거래소 대표들이 자리해 자본시장의 발전 방향과 거래소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출국한 정 이사장은 다음날인 21일 홍콩에서 주요 기관투자자를 대상



으로 한국증시 글로벌 로드쇼도 개최할 예정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모건스탠리와 공동 개최하는 이번 로드쇼는 “한국 자본시장의 제도 개선 성과와 투자 매력에 홍보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23일에는 중국 선전거래소를 방문해 리 지준 총경리와 함께 자본시장 경쟁력 제고 및 거래소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또 현지에 있는 한국 기술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은 “아시아 주요 거래소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글로벌 자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하은 기자



20일 전남 여수 모처에서 '에너지·플랜트 분야 녹색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식이 열리고 있다. /기후부

기후부, 민·관 '녹색산업협의체' 확대

'전략적 수주 지원' 플랫폼 역할 수행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일 전남 여수에서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확대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14곳과 민간기업 12곳이 참여한다.

이 행사는 지난해 10월에 출범한 기후부의 해외진출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급증하는 전 세계 녹색 신산업의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기존 74개 기관이 참여하던 녹색산업 협의체는 '환경'에 국한돼 있었다. 이번 협의체는 에너지와 플랜트, 전력계통 등 '녹색 신산업' 전반으로 확장됐다.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전력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4곳이 참여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삼성중공업, 한화솔루션, HD일렉트릭, LS일렉트릭, LX인터내셔널, 에코프로HN 등의 대기업뿐 아니라 동반진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중견·중소기업 등 도합 12개사가 참여한다.

새롭게 정비된 녹색산업 협의체는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선다. 해외사업 발굴부터 협력망 구축, 수주,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전략적 수주 지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망 등 서로 다른 산업군이 결합한 '묶음(패키지)형 수주' 경쟁력을 확보해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여 간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여수 엑스포장과 오동도를 잇는 방파제 길이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듯이 녹색산업 협의체가 우리 기업과 세계 시장을 연결하는 가장 단단한 가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중동發 석화 원료 수급 불안정 일회용품 저감... 자원순환 기회

수도권매립관리공, 기후부 추진 '플라스틱 소비 줄이기' 운동 동참
폐기물 처리·폐수 바이오가스화 등 에너지·자원위기 대응 기반 마련도



인천 서구 소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일회용품 사용 저감 등 자원순환 실천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 중인 '플라스틱 소비 줄이기 실천운동' 관련 동참이다.

주요 실천 내용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1회용 컵·페트병, 풍선, 비닐우산 등 사용 자제) ▲다회용품 사용 확대(다회용 컵, 장바구니 등 활용) ▲재활용 제품 사용 및 올바른 분리배출 등이 포함됐다.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들이다.

공사 관계자는 "중동지역 긴장 고조

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플라스틱 등 석유 기반 제품 사용 절감과 효율적인 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일회용품 사용 저감 실천을 전사적으로 확대하며, 자원순환 공공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공사는 또 청사 인근의 드림파크 야생화단지에서 열리고 있는 '드림파크

벚꽃길 산책'(4월10일~19일) 기간에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회용품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또 단순한 사용 줄이기 수준을 넘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매립가스 발전 ▲음식물폐수 바이오가스화 등 에너지 회수 사업 ▲온실가스 감축을 연계한 자원순환 체계 등을 강화해, 에너지와 자원 위기에 대응하는 기반 마련에도 주력하고 있다.

송병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국제 원자재 시장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회용품 사용 절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부의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자원순환 사회 전환과 국가적 위기 대응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국표원, '반려로봇' KS 인증대상 품목 지정

(국가표준)

음성·얼굴인식, 위기상황 대응부터 배터리 과열, 내열성 등 안전성 점검 '시판품 조사'로 철저한 사후관리도

앞으로 반려동물처럼 사람과 교감하며 일상을 돕는 '반려로봇'에도 국가표준(KS) 인증 마크가 붙는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반려로봇을 국가표준(KS) 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KS 인증 체계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설계됐다. 단순히 로봇이 잘 움직이는지를 넘어 상호작용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주요 평가 항목은 음성이나 얼굴 인식 등 상호작용 성능과 위급 상황 발생 시 대응 기능 등 기능적 성능은 물론, 배터리 과열 여부, 내열성, 내화성 등 안전성도 점검한다.

또 제품 성능에 그치지 않고 제조공장의 공정관리, 자재관리, 사후 서비스 대응(AS) 체계 등 기업의 품질 역량 전반을 검증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린 '서울시페스티벌 2026'에서 한 어린이가 '로보로스'의 휴머노이드 로봇과 손하트를 만들고 있다. /뉴시스

이번 품목 지정에 따라 조만간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인증기관으로서 평가를 거친 뒤 본격적인 인증이 시행될 예정이다. KS 인증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법적 임의인증 제도지만, 인증 획득 시 제품 홍보와 정부 조달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인증 이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시판품 조사'를 통해 품질 저하가 발견될 경우 표시정지나 판매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치

명적인 결함이 발견되면 인증 취소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국내 개인서비스용 로봇 시장은 양적 성장에 더해 안전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KS 인증 도입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반려로봇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권익위 권고로 순직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故 배종섭 씨, 18년 만에 명예 회복

가로등 보수작업 중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순직공무원 고(故) 배종섭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를 통해 사망 18년 만에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국민권익위는 20일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유가족과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국승철 전주시 완산구청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의 안장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1991년 지방전기원 공무원으로 임용된 고인은 17년간 성실히 근무해왔다. 그러나 2008년 2월 29일, 전주시 강변로에서 고소 작업대 위에 올라 가로등을 보수하던 중 지나가던 크레인 차량이 작업대 지지대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추락한 고인은 이튿날인 3월 1일, 뇌출혈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40세의 젊은 나이에 순직했다.

특히 고인의 발인이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치러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했다.

사고 직후 전주시 완산구청과 공무원연금공단은 고인의 순직을 인정했으나, 국가보훈부는 2013년 국립묘지 '안장비대상'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유가족의 재심의 신청에도 서류가 반송되는 등 고인의 명예는 오랜 시간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했다.

이에 고인의 배우자가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남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도와 달라'며 고충민원을 신청했고, 권익위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2월 국가보훈부에 안장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권고, 보훈부가 이를 수용하며 마침내 고인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확정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전윤중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취임

5국3특 기반 균형발전 등 강조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전윤중 제6대 원장(사진)이 20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전 원장 취임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리즈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통상부에서 통상·산업정책 분야 요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2022년부터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원장으로 3년 넘게 재직했다.

기술혁신 정책, 산업기술 개발 및 사업

화 전반에 정통한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전 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기술패권 경쟁에 선제적 대응 ▲산업 인공지능 전환(AI) 선도 ▲5국3특 기반 국가균형발전 뒷받침 등 세 가지 사업 방향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주요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기업 지원을 극대화하고, 국정과제를 철저히 완수하며, 현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기본소득' 대상지 추가 선정

내달 중순 군 5곳 안팎 추가 예정

정부가 농어촌 소멸위기에 대응해 추진 중인 '기본소득'의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사업 효과가 보인다는 판단 하에 적용 지역을 확대해 정책 확산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 군(郡)의 추가 선정을 위해 5월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후 5월 중순 최종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이미 사업을 추진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관련 예산 범위 내에서 군 5곳 안팎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소멸위기 및 지역 간 격차 심화 대응을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인구감소지역 군 단위를 중심으로 주민에게 일정 소득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와 정주여건 개선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둔다.

평가는 기존 공모와 동일한 절차와 지표를 유지하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원 투입 능력과 지자체 추진 의지 등을 중심으로 보완된 기준이 적용된다.

주민등록에 따라 실제 거주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1인당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회복 등 효과를 확산시키고 농어촌을 '머물고 돌아오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NARA CELLAR

역시! 몬테스



결국! 몬테스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와인 부문 2년 연속 1위**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경남형 통합돌봄’ 1681명 신청… 도민 체감할 완성도 갖춘다

건강보험공단과 대상자 발굴 협업 18개 시·군 서비스 격차 해소 특성 맞는 ‘지역 특화 서비스’ 결합 합동점검반 편성해 운영 전반 점검



경상남도청 본관 전경.

경남도는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남형 통합돌봄’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3월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선제적으로 경남형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노인 등 취약계층에서 전 도민으로 확대하기 위해 자체 예산 34억원도 편성했다.

그 결과 1월부터 4월15일까지 경남형 통합돌봄 신청자 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된 3월27일부터 4월10일까지 복지부 통계 기준 551명을 포함해 총 1681명에 이른다.

특히 4월11일부터 3일(업무기준일) 만에 179명이 추가 신청하면서 신청률이 32%로 급증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과 협업을 통해 장기요양 1, 2등급 대상자와 탈락 가정에 통합돌봄 신청 안내문 발송, 의무 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다.

경남도는 돌봄 대상자 발굴과 함께 대상자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 연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군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서비스를 표준화했고, 광역 단위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8개 시·군이 주거·보건의료 등 필수 서비스를 일정 수준 이상 동일하게 제공하도록 총괄관

리하고 있다. 아울러 시·군별 특성에 맞는 ‘지역 특화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본인부담금 기준을 체계화하여 운영의 형평성을 높였다. 또한 전 시·군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을 완료해 대상자 발굴 시 즉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추었다.

사업 홍보도 현장 중심으로 확대했다. ‘경남 통합돌봄주간’ 운영을 통해 도와 전 시·군이 동시에 집중 홍보를 실시했고, 축제 연계 상담과 경로당 방문, 이·통장 회의 등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는 통합돌봄과장을 중심

으로 한 3개 반 14명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2월11일부터 4월22일까지 일정으로 도내 18개 시·군 본청과 305개 읍면동, 22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통합돌봄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시·군 자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 본청 현장 실사와 읍면동 표본 점검을 통해 TF 형태로 운영 중인 8개 시·군은 정규 조직 전환을 유도했고, 시·군 본청 및 일부 보건소에 60명의 전담인력 배치사항을 확인했다. 읍면동은 겸직 인력 324명이 시·군 본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며, 10월부터는 신규 공무원 채용을 통해 369명의 전담인력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도출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모니터링으로 도민들이 체감하는 완성도 높은 경남형 통합돌봄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일자리정보망에 AI 기능 추가

부산시는 AI 기반 정보 추천 기능에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개선한 새로운 ‘부산일자리정보망’을 20일부터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밝혔다.

‘부산일자리정보망’은 지역 내 흩어진 일자리 정보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7년 구축된 이후 연간 접속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시민들의 대표적인 일자리 정보 창구로 기능을 해왔다.

이번 개편으로 회원가입 후 ▲관련 이력 ▲희망 직무 ▲근무조건 등을 입력하면 이를 기반으로 AI가 적합도를 분석해 개인별 맞춤 일자리와 정책 정보 등을 추천해 제공하며, 비회원이라도 인공지능 통합 검색창에서 간단한 조건을 입력하면 지역 내 채용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 등 관련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북도

영화·드라마 촬영 유치 홍보

경북이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의 주요 촬영지로 등장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방영 중인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의 총리 관저와 국회의사당은 경북도청 앞마당과 회랑을 배경으로 촬영됐다.

경북도는 도내 관광자원을 적극 알리고자 촬영지 발굴부터 섭외, 촬영 허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촬영 시설을 국가 차원의 공공재로 관리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경북도는 최근 3년간 300여 편의 영화와 드라마 촬영을 유치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영덕군

5494개 일자리 창출 목표

경북 영덕군은 지역 경제의 활력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 일자리 공시제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지역 일자리 활성화 정책으로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해 주민들에게 공표하는 제도이다.

군은 이번 공시제를 통해 15~64세 기준 고용률 75%, 취업자 수 1만2000명 달성을 목표로 총 5494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제시했다. /영덕(경북)=김준한 기자

경북교육청

직업계고 ‘상반기 채용설명회’

경북교육청이 24일까지 도내 직업계고 3학년 학생과 학부모, 취업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 상반기 기업체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금오공고(20~21, 24일), 구미여상(22~23일), 라한호텔 경주(24일) 등 3곳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19개 국내 기업이 참여한다. 설명회는 사전 신청을 완료한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이 참여한다. /경북=김준한 기자

구미시, 동유럽 농식품 시장 공략

부다페스트·오스트리아 빈에 구미시 농식품 해외개척단 파견 지역 유망 농식품 기업 4곳 참여



구미시 농식품 시장개척단이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더블트리 바이 힐튼 포트리에서 열린 수출상담회에서 현지 바이어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구미시는 지역 농식품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동유럽 공략에 나선다.

최근 중동지역 긴장 고조와 물류 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자, 시는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와 오스트리아 빈에 ‘2026년 구미시 농식품 동유럽 해외개척단’을 파견한다.

이번 개척단에는 지역 유망 농식품 기업 4개사가 참여해 냉동김밥과 떡볶이, 떡, 양념꾸꾸미 등 K-푸드를 중심으로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회는 4월 21일 부다페스트, 4월 23일 빈에서 각각 열리며, 현지 바이어와 1대1 매칭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사전 시장성 평가와 맞춤형 바이어 발굴, 통역 지원 등 상담 전 과정을 지원한다. 항공료 50%와 샘플 운송 초과 수화물 비용 일부도 보조하며, 상담 이후에도 사후관리와 후속 지원을 이어가 실질적인 계약 성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구미(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부산항 개항 150주년… ‘조선통신사 축제’

부산문화재단, 오는 24일부터 열여

부산문화재단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북항친수공원, 광복로 일원, 부산박물관, 국립부산국악원 등 부산 전역에서 ‘2026 조선통신사 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맞아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가치를 현대적 시각으로 풀어내는 글로벌 복합 문화축제로 기획됐다. 주제는 ‘바다를 건너, 사람을 잇다’로, 평화의 메시지를 미래 세대와 세계로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축제 첫날인 24일은 학술 행사로 문을 연다. 부산박물관 대강당에서는 조선통신사 학회와 연계한 심포지엄 ‘조선통신사와 아시아 문화교류’가 열린다. 같은 장소에서는 기획전 ‘부산 개

항 150년: 바다를 건너간 녀석들’도 함께 열려 개항 이후 부산의 해양 교류 역사를 조망한다.

25일에는 북항친수공원에서 공식 개막식이 열린다. 한국 공연팀 ‘틀에디션’의 창작 공연 ‘일장춘몽’과 일본 시즈오카 ‘키요사와카구라보존회’의 전통 공연이 무대에 오르며 평화의 의미를 담은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를 연출한다.

이날 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도 펼쳐진다. 시민·유학생·외국인·어린이 참가자와 지역 예술인, 전문 행렬단 등 약 500명이 참여하며 배우 유재명이 정사 역할을 맡아 행렬의 완성도를 높인다.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국가대표 팀 ‘유펙플레이’와 함께하는 북항 종이비행기 대회가 열린다. /부산=이도식 기자

부산시, IT청년 정주형 원격근무 운영

지역 IT 인력 역의 유출 방지

부산시가 지역 청년 IT 인력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일자리 모델을 도입한다.

시는 청년 IT 개발자가 부산에 거주하면서 국내외 기업의 프로젝트를 원격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부산형 마이크로 일자리 기반 정주형 원격근무 프로젝트’를 전국 최초로 올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기반 개발 환경 확산과 프로젝트 단위 원격 협업 증가 등 디지털 산업 변화에 대응한 조치다.

사업 일정은 21일 원격근무 지원 플랫폼 기업 모집을 시작으로, 5월 중 참여 청년 개발자와 프로젝트 발주 기업 모집을 거쳐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지

원 규모는 약 20개 내외의 프로젝트다.

지원 대상은 부산 외 IT 프로젝트 발주기업과 이를 수행하는 부산 청년 개발자·개발팀·스타트업이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청년 개발자에게는 고용보험료·프로그램 구독료 등 명목으로 최대 100만원, 창업한 개인 개발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창업 지원금을 제공한다. 프로젝트 발주 기업에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 등을 바우처 형태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부산시는 이번 시범 사업을 발판으로 외부 기업 프로젝트 발굴, 지역 청년 개발자 매칭, 원격 협업 플랫폼 연계 등을 통해 부산형 원격 프로젝트 일자리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부산시, 해군·해병대와 ‘AX 거점’ 조성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등과 ‘밋업데이’

부산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해군·해병대와 손잡고 해양·국방 분야의 인공지능(AI) 전환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올린다.

민·관·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AI 전환(AX) 과제 발굴 밋업데이’가 오는 30일 열린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6일 부산시와 해군이 체결한 ‘해양 및 국방 분야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의 후속 조치로, 실질적인 신규 사업 발굴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양측은 협약 체결 이후 ▲민·관·군 AI 기술 개발 협력 ▲공동 연구 개발 과제 발굴·기획 및 사업화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다. 3월 3일부터는 해군·해병대 인력이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본원에 상주하며 실무 차원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밋업데이는 군의 실제 수요에 기반한 실증 가능 과제를 도출하고, 지역 AI 기업·스타트업·연구 기관이 국방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기술 협력 플랫폼’ 역할을 한다.

세부 프로그램은 ▲해군·해병대 수요 발표 ▲국방 AX 거점 추진 전략 발표 ▲공동 AX 과제 기획 및 기업 매칭 세션으로 구성되며 수요 발굴부터 협력 파트너 연결까지 한 자리에서 진행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유통가 덮친 잔인한 봄... 나들이 특수·월드컵 대목 '실종'

대한상의, 2분기 경기전망 '침체' 중동 리스크에 유가·환율부담 가중 봄 특수 기대 꺾이고 소비심리 위축 소비맥주 제외 월드컵 마케팅 관망

중동전쟁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과 소비 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유통업계가 기대했던 '나들이 특수'와 '월드컵 대목'이 모두 불투명해졌다. 고물가·고환율 부담에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흥행 동력마저 약화되면서 유통업계의 시름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중동전쟁이 찬물 끼얹은 봄철 소비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분기 소매 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는 80에 그쳤다. 지수가 100 미만이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으로, 전 분기(79)와 마찬가지로 침체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통 2분기는 나들이 객수 증가와 가정의 달(5월), 이사 및 결혼 수요가 겹치



고물가·고환율 부담에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흥행 동력마저 약화되면서 유통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컷GPT로 생성한 이미지

는 이른바 '황금기'로 통한다. 하지만 최근 고조된 중동전쟁 위기가 내수 진작 요인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 편의점(85)과 슈퍼마켓(80), 대형마트(66), 온라인 쇼핑(74)이 암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관계자 대다수가 유가와 환율 상승에 따른 재료 매입가 및 물류비 상승을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았다.

대외 변수와 내부 소비 위축이라는 이

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희원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추경이 전통시장과 유통업계의 실질적인 소비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며, "물류비 부담 완화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집중적인 집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모여서 응원 위해" 월드컵 특수 난망

오는 6월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역시 유통업계에 큰 힘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월드컵은 치킨과 맥주 등 외식·주류 소비를 폭발시키는 기폭제였으나, 최근에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유통업계에서 월드컵 마케팅에 적극적인 곳은 소비맥주 정도가 유일하다. 소비맥주 '카스'는 FIFA 월드컵의 공식스폰서로 TV광고, 응원 이벤트 등 다양한 월드컵 마케팅 활동을 진행한다.

대다수 기업은 관광세를 유지중이다. 이유는 소비 구조의 변화 때문이다. 팬데믹 이후 대규모 거리응원보다는 개인이나 소가족 단위의 시청이 주를 이루면서 특정 시점에 매출이 집중되는 집약적 소비가 사라졌다는 평이다.

또 불리한 경기 시간대와 대표팀에 대한 낮은 기대감도 마케팅 의지를 꺾는 요소다. 또 주요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평일 오전 10~11시에 배치되어 있어 배달 및 외식 소비를 자극하기 어렵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국민의 관심이 떨어지는데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마케팅을 펼치기에는 리스크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불확실성이 큰 월드컵 대신 효과가 검증된 효율적 채널로 마케팅 예산을 재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격적인 마케팅보다는 내실 경영에 집중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

hy, 반려동물 토탈 케어 플랫폼 '큐토펫' 선보여

프리미엄 펫푸드 중심 라인업 AI 건강진단·장 건강 분석 제공 수의사 상담 등 서비스 확대

PETKULT



펫쿠르트. /hy

hy가반려동물 토탈 케어 플랫폼 '큐토펫(QtoPet, 이하 큐토펫)'을 론칭했다.

큐토펫은 반려동물의 생애 전반을 관리하는 플랫폼이다. 국내 반려동물 가구 비율이 약 30% 수준까지 확대되어 기존 자사몰 'hy프리트'와 별도로 운영하는 온라인몰을 구축했다.

큐토펫은 프리미엄 사료를 중심으로 제품 라인업을 구성했다. 글로벌 브랜드

'애니몬다'와 미국 수의사 안 폴(Jan Pol)이 론칭한 '닥터폴' 제품을 먼저 선보인다.

보조사료도 함께 운영한다. 기존 hy

펫쿠르트 브랜드의 수제 간식, 영양트릿 등을 구매할 수 있다. 펫쿠르트 '건강하게 프로젝트 알 펫미크' 3종은 기능성을 강화해 리뉴얼한다. hy 특히 프로바이오틱스 HP7 사균체를 적용하고 프리바이오틱스를 더해 위장 건강까지 고려했다.

차별화된 케어 서비스는 큐토펫의 강점으로 꼽힌다. AI 기반 건강 진단과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반려동물 사진을 업로드하면 슬개골 질환과 같은 주요 건강 상태를 분석할 수 있다. 분변 키트를 활용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으로 장 건강을 비롯해 관절

염, 피부염 등 7종의 중대질환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다.

큐토펫은 향후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플랫폼 경쟁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수의사 상담을 도입해 케어 기능을 고도화하고 라이프스타일 용품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큐토펫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인 hy N.Biz팀장은 "큐토펫은 반려동물의 삶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이라며 "차별화된 케어 경험을 제공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오리온 초코송이·고래밥 재탄생 그림책 품은 동화 에디션

오리온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표 과자인 '초코송이, 고래밥' (사진)의 세계관을 그림책으로 확장하고, 출간을 기념해 '동화 에디션' 제품을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오랜 기간 아이들은 물론 부모 세대와도 친숙한 과자 캐릭터가 그림책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출판사 '김영사'의 제안으로 시작했다. 김영사는 초코송이의 '송이'와 고래밥의 '라두'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창작 그림책을 제작하고, 오리온은 이를 패키지에 접목한 한정판 제품을 함께 출시했다. /신원선 기자

SSG닷컴, 어린이날 '유아동 GIFT 3 DAYS' 나라셀라, 덕혼 50주년 패키지 선보

22일까지 완구·패션·육아용품 할인



SSG닷컴이 어린이날 기념 육아용품 행사를 진행한다. /SSG닷컴

SSG닷컴은 오는 22일까지 3일간 '유아동 GIFT 3 DAYS' 행사를 열고, 어린이날 선물로 좋은 인기 완구와 패션, 육아용품을 한데 모아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이 기간 신세계몰·신세계백화점몰 유아동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 12%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행사카드 결제 시 최대 8% 청구 할인 혜택을 추가 받을 수 있다.

22일 오전 11시에는 스위스 프리미엄 키보드 브랜드 '마이크로 키보드' 라이브 커머스 방송도 진행한다. 즉시 할인과 방송 중에만 발급되는 전용 쿠폰에 청구 할인까지 모두 적용하면 최대 27%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 사은품 증정 혜택과 구매 인증 이벤트도 마련했다.

SSG닷컴은 5월 초 연휴 영향으로 예년보다 어린이날 선물 구매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행사를 준비했다. 실제로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슝닷컴 유아동 완구와 의류 매출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신장세가 가장 두드러진 품목은 야외 활동용 완구다. 유아동 자전거와 키보드 매출이 전년 대비 약 2배 급증했으며, 봉봉카 등 승용 완구도 55% 늘었다.

실내용 완구 매출도 함께 늘었다. 발육·유아완구 매출이 97% 증가했다. 블록 완구와 봉제 인형 매출은 각각 45%, 28% 신장했다.

외출 수요가 겹치며 의류 매출도 오른세다. /신원선 기자

한국적 감성 입힌 프리미엄 와인 4종 국내 와인 유통업계 1호 상장사 나라셀라가 미국 프리미엄 와이너리 '덕혼(Duckhorn Vineyards)'의 설립 50주년을 기념해 특별 패키지를 출시한다. 이번 패키지는 총 4종으로 전국 GS25 오프라인 매장에서 단독 판매된다.

나과 밸리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온 '덕혼'의 50주년을 기념한 감사 패키지로 한국 전통 단청과 나전칠기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을 적용해 프리미엄 와인의 품격과 한국적 감성을 동시에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먼저 ▲디코이 멀롯(Decoy Merlot)과 슈피겔라우 테피니션 보르도 글라스로 구성된 기획 세트는 단청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을 적용해 한국적 미를 강조했다. 디코이 멀롯은 검은 자두, 블랙체리, 라즈베리, 다크 초콜릿, 삼나무야로마와 미네랄리티가 조화를 이루며, 실키한 탄닌과 차분하고 우아한 스타일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나전칠기 스타일을 적용한

와인 패키지 3종도 선보인다. 특히 패키지 후면 디자인을 연결하면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는 구조로 제작돼 소장 가치를 높였다.

▲패러덕스(Paraduxx)는 품종 중심의 나과 밸리 고정관념을 깨고 블렌딩을 통해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하는 레드와인으로, 진판델과 카버네 소비뇽이 블렌딩됐다. 블랙베리와 블랙체리의 과실 향에 바닐라, 모카, 시나몬의 달콤한 누앙스가 더해져 풍부한 풍미를 느낄 수 있다. ▲디코이 리미티드 알렉산더 밸리 카버네 소비뇽(Decoy Limited Alexander Valley Cabernet Sauvignon)은 고품질 포도만을 사용해 완성된 프리미엄 라인으로, 블랙체리와 자두, 베이킹 스파이스의 조화와 균형 잡힌 산미가 특징이다. ▲디코이 리미티드 알렉산더 밸리 멀롯(Decoy Limited Alexander Valley Merlot)은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제품이다. 자두와 베리류의 풍부한 과실 향에 허브와 오크 스파이스가 어우러진 복합적인 풍미와 부드러운 질감, 균형 잡힌 구조가 돋보인다. /신원선 기자



롯데쇼핑 입는 로봇 '하이퍼셸' 론칭 프로모션 26일까지

롯데쇼핑의 e커머스 플랫폼 롯데온(LOTTE ON)은 26일까지 AI 웨어러블 로봇 '하이퍼셸(Hypershell)' 론칭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하이퍼셸은 보행과 계단 이동 시 하체 근력을 보조하는 제품으로, 일상 속 이동 경험을 혁신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서비스로봇 선도기업 브이디로보틱스가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한 하이퍼셸 3종 라인업을 만나볼 수 있다. /신원선 기자

“한 번 주사로 한 달 효과”... 인벤티지랩, CNS 치료 혁신

(중추신경계)

미국 신경과학회서 임상결과 발표
한달간 안정적인 약물 농도 유지
플랫폼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확인



인벤티지랩.

약물 전달 플랫폼 기업 인벤티지랩은 18일(현지시간) 개최된 ‘2026 미국신경과학회(AAN 2026)’에 포스터 발표자로 참석해 자사의 장기지속형 주사제 파이프라인 2종의 임상 1상 주요 결과를 발표한다고 20일 밝혔다.

AAN은 신경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대회로,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과 연구자들이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이번 학회에서 인벤티지랩은 자사 핵심 기술인 장기지속형 주사제 제조 플랫폼 ‘IVL-DrugFluidic’을 적용해 개발 중인 IVL3003(치매치료제)과 IVL3004(약물·알코올중독 치료제)의 임상 1상 연구 결과를 포스터로 발표한다. 이번

발표는 회사의 장기지속형 제형 플랫폼 기술이 다양한 중추신경계(CNS) 질환 영역으로 성공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학회에서 발표되는 치매치료제 IVL3003은 건강인 대상 임상에서 매일 복용하는 경구제와 달리 혈중 약물 농도가 4주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투여 용량이 높아질수록 체내 약물 노출량도 그에 비례해 증가하는 예측 가능한 특성이 확인됐다.

또 혈중 농도에 상응하여 치매 유발 물질인 아세틸콜린 분해효소가 억제되는 약리적 반응이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그 억제 수준은 경구 아리셉트 반복 투여군에서 관찰되는 수준과 유사한 범

위로 확인되어 약물이 체내에서 의도한 대로 작용하고 있음이 뒷받침됐다.

약물·알코올중독 치료제 IVL3004 역시 건강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 초기 과다 방출이 없고, 기존 장기지속형 제형과 비교했을 때 유효 혈중 농도가 동등한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도 부작용은 완화된 양상이 관찰됐다.

인벤티지랩은 이번 발표를 통해 장기 지속형 제형 기술이 다양한 약물에서도 일관된 방출 제어 특성을 구현할 수 있음을 임상에서 확인하는 한편, 환자의 복약 편의성과 치료 지속성 개선 측면에서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치매와 약물·알코올중독은 질환의 특성상 환자가 매일 스스로 약을 복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1회 주사하는 것만으로 한달간 안정적인 약물 농도가 유지되는 장기지속형 주사제가 가장 획기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특히, 장기지속형 주사제 시장이 글로벌 제약 산업 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학회 발표는 회사의 플랫폼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무대에서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이사는 “현재까지 진행한 3개의 파이프라인 임상 시험 모두에서 안정적인 혈중 농도 유지와 용량 비례적 특성이 일관되게 확인되었다”며 “서로 다른 기전의 약물에서 동일한 결과가 반복된다는 것은 당사 플랫폼이 특정 약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 가능한 기술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기술을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이 치료에 쉽게 접근하고 일상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성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신제품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윤빛 피부 회복 아이템



아모레퍼시픽의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일상 속 자극으로 지친 피부에 즉각적인 생기와 윤기를 선사하는 신제품 ‘윤조에센스 스미스트(사진)’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설화수 대표 제품 ‘윤조에센스’의 정수를 그대로 구현해 뿌리는 순간 피부 본연의 힘을 깨우고 생동감 넘치는 피부를 완성해 준다. 특히 500시간 숙성 인삼 유래 성분을 담은 설화수의 독자 성분 림파나스를 함유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삼바로직스, AACR 첫 참가... CRDMO 역량으로 고객 공략

(위탁연구개발생산)

美암연구학회 세계 최대 규모 행사
CRDMO 통합 서비스 역량 홍보
전임상·초기 임상 단계 고객 확보



삼삼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최대 암 학회인 ‘AACR 2026’ 현장에서 기업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삼삼바이오로직스

삼삼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막을 올린 ‘미국암연구학회(AACR 2026)’에 참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삼삼바이오로직스는 ‘삼성 오가노이드’ 등 위탁연구(CRO)부터 위탁개발(CDO), 위탁생산(CMO)을 모두 아우르는 위탁연구개발생산(CRDMO) 역량을 적극 알리며 고객사와 적극 교류했다.

AACR은 세계 최대 규모의 암 학술 행사로 전 세계 140여 개 국가의 암 관련 연구자 및 제약·바이오 기업 관계자 2만2000명 이상이 참여한다. 올해는 ‘전 세계 생명을 살리기 위한 암 과학의 진전’을 주제로 열리고 있다.

삼삼바이오로직스의 AACR 참가는 올해가 처음이다. AACR이 초기 개발 단계인 전임상·초기 임상 단계 연구 성과 발표가 집중되는 행사인 만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초기 개발 단계에 있는 고객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CRO·CDO 수요가 높은 개발 초기부터 고객사와 협업해 향후 상업 생산까지 이어가는 ‘조기 선점 효과’를 노린다.

삼삼바이오로직스는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각종 발표를 진행하며 회사의 CRDMO 경쟁력을 알린다.

특히 21일에는 알렉시스 산타나 오가노이드 세일즈 디렉터가 ‘삼성 오가노

이드: 항암 신약 개발에서의 임상적 관련성 증진’에 대해 소개한다. 높은 환자 유사성을 가진 오가노이드 서비스를 활용한 신약 개발 성공률의 향상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 삼성 오가노이드가 실제 환자의 유전적 특성과 약물 반응을 그대로 재현하며 임상 결과와의 높은 상관성을 입증한 데이터를 공유한다.

아울러 삼삼바이오로직스의 이중항체

플랫폼 ‘에스-듀얼’의 높은 치료·제조 효율성과 관련한 최신 지견도 나눈다.

삼삼바이오로직스는 기존의 대량 상업생산 외에도 보다 다양한 고객의 수요를 충족하고자 초기 개발 단계부터 최종 상업화에 이르는 엔드 투 엔드 CRDMO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6월 CRO 서비스인 삼성 오가노이드 서비스를 론칭해 CDMO를 넘어 CRO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한편, 올해 3월에는 마스터세포은행(MCB) 생산·배터 제작 서비스를 내재화해 CDO 서비스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등 맞춤형 CDO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삼바이오로직스 정형남 바이오연구조장(부사장)은 “혁신 신약의 초기 개발 단계부터 CRO·CDO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신뢰받는 신약 개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며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mlee236@

라엘

통기성 살린 쿨 생리대



우먼 웰니스 브랜드 라엘이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어리 쿨 생리대(사진)’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화학적 냉각 성분 없이 소재와 통기성 중심 구조 설계만으로 시원한 착용감을 구현한다.

타시트에는 상처용 거즈에서 착안한 3중 에어 메쉬 구조를 적용해 혈액은 빠르게 흡수하고 습기 배출과 통기성은 극대화했다. 일반 생리대 대비 공기투과도를 약 25% 개선했으며, 실제 용액 흡수 후 온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 10분 만에 피부에 닿는 커버 표면 온도가 3~4도가량 낮아지는 것이 확인됐다.

/이정하 기자

종근당, ‘CKD-703’ 글로벌 임상 개시

암세포만 사멸시키는 기전 갖춰

종근당은 항체·약물 접합체(ADC) 기반 항암 신약 ‘CKD-703’의 글로벌 임상 1/2a상 시험을 위한 미국 내 첫 환자 등록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임상은 비소세포폐암(NSCLC) 및 다양한 고형암 환자에서 CKD-703의 안전성 및 최대내약용량을 확인한다. 개념입증을 기반으로 최적 용량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를 비롯해 한국과 미국의 약 12개 기관에서 진행되며 미국 오하이오주 소재 가브레일

암센터에서 첫 환자를 등록했다.

CKD-703은 혁신 항암 신약 후보 물질이다. 종근당이 독자 개발한 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c-Met) 타겟의 단일클론항체에 차세대 ADC 플랫폼 기술을 적용해 개발 중이다.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사멸시키는 기전을 갖췄다.

지난해 7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임상 1/2a상을 승인받은 데 이어 올해 2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아 상반기 환자 등록이 시작될 예정이다. 향후 유럽 등으로 임상 국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하 기자

동국생명과학, ‘이오파미돌’ 유럽시장 진출

원료의약품 품질 인증 획득

동국생명과학은 지난 16일 유럽에서 ‘이오파미돌(API)’에 대해 원료의약품 품질 인증(CEP)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CEP는 유럽의약품품질위원회가 발급하는 원료의약품 품질 인증 제도로, 유럽 의약품 시장 진입을 위한 핵심 요건으로 꼽힌다.

동국생명과학의 이오파미돌은 비이온성 요오드 조영제, CT 검사 등에 쓰인다. 특히 글로벌 영상진단 시장에서 원료의약품 품질 확보는 완제의약품 경쟁력과 직결된다. /이정하 기자

동국생명과학은 이번 CEP 인증이 유럽 및 선진국 시장 확대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럽, 중국, 일본 등에서 글로벌 사업 구조를 구축해 주요 시장을 연결하는 공급망 체계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도 MRI 조영제 ‘가도부트론(API)’ 허가를 취득하며 중국 시장 진입 기반을 확보했다. 중국은 영상진단 시장 성장률이 높은 국가로 조영제 수요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가도부트론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제품 믹스 개선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정하 기자

LG생활건강 ‘더페이스샵’ ‘미감수’ 20주년 재단장

LG생활건강의 클린뷰티 브랜드 더페이스샵은 ‘미감수 브라이트 클렌징 폼(사진)’ 출시 20주년을 기념해 재단장한 제품을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06년 첫 선을 보인 미감수 브라이트 클렌징 폼은 쌀뜨물로 세안하면 얼굴이 밝아진다는 한국의 전통 미용 비법을 담아, 순화면서도 강력한 세정력을 갖췄다. 더페이스샵의 쌀 연구 노하우를 집약했고 경기 여주산 무농약 프리미엄 쌀을 사용했다. /이정하 기자



소갈비살 패티로 쫄깃한 고기 식감 UP!

불갈비버거

단품 6,800원 세트 8,800원

DT매장
전용 패키지!



영양성분표

버거메뉴	총중량(g)	열량(kcal)	단백질(g)	나트륨(mg)	당류(g)	포화지방(g)
불갈비버거	182	467	19(35%)	870(44%)	13	10.0(67%)

세트메뉴 : 선택 디저트, 음료에 따라 영양성분 상이

버거세트메뉴	열량(kcal)
불갈비버거 세트	579 kcal ~ 1,264 kcal

알레르기 유발 안내

불갈비버거	달걀, 밀, 대두, 우유, 쇠고기
-------	--------------------

원산지

쇠고기(호주산)

LOTTERIA™

메뉴 구성에 따라 알레르기 성분이 다르므로, 각 메뉴별 알레르기 성분을 확인 바랍니다. 각 제품은 원재료의 수급 상황에 따라 구성 성분 및 원산지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락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의 영양성분은 1회 제공량 기준이며, 당사 표준 레시피에 따른 제품의 영양성분으로 실제 제공된 제품의 영양성분과 중량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영양표는 판매되는 모든 제품의 영양 정보를 포함하지 못할 수 있으며 영양성분은 실험 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FIA WEC' 데뷔전

현대차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국제자동차연맹(FIA)이 주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내구 레이스 'FIA 월드 인듀어런스 챔피언십(WEC)' 데뷔전을 치렀다고 20일 밝혔다.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차량은 각각 211랩과 189랩으로 15위와 17위를 기록했다. /제네시스



현대제철, '현대제철과 함께 철들자' 이벤트

현대제철이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키자니아 서울점에서 체험형 행사 '현대제철과 함께 철들자' 이벤트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제한시간 안에 철을 들어보는 게임과 초성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현대제철 마스코트 '용강이'와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현대제철



NHN, '2026 한일 신입 교류회' 마무리

NHN은 20일 한국과 일본 법인 신입사원이 함께 참여한 '2026 한일 신입 교류회'를 마쳤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교류회는 48명이 참여해 기업 비전과 글로벌 전략을 공유하는 리더 메시지 세션에 참여하고, 게임 개발 스튜디오와 데이터센터 방문하며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 /NHN



화재보험협회, '노사 상생 선언문' 채택

화재보험협회는 20일 노동조합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노사 상생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강영구 화재보험협회 이사장과 이상문 노동조합 위원장은 직원 권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조화로움 실현, 합리적·공정한 제도 및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노사 상생 선언문'에 공동 서명했다. /화재보험협회



LG헬로비전, 창릉천 일대 환경정비 활동

LG헬로비전은 지난 17일 임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환경정비 활동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고양시 창릉천 일대에서 임직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창릉천 뱃길 인근에서 플로깅을 실시하고 개나리와 무궁화 묘목 약 1000주를 식재했다. /LG헬로비전

“모두가 주인공”... HS효성, 장애·비장애 경계 허물어

‘가온 솔로이스츠’ 정기연주회 송중기 부부 등 각계각층 참여

HS효성이 송중기 부부, 뮤지컬 배우 김소현 등 셀럽들과 함께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HS효성이 지난 18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 챔버홀에서 장애·비장애 통합 실내악 연주단 ‘가온 솔로이스츠’의 제7회 정기연주회 ‘어린이 정경’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이날 공연에는 배우 송중기와 케이트 사운더스 부부가 나레이터로 직접 출연해 공연의 몰입도를 한층 더 높였다. 송중기·케이트 부부의 목소리로 전해진 음악 해설은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의 분위기를 한층 풍성하게 만들었다. 송중기·케이트 부부의 첫 공식행보가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며 전파하는 선한 영향



HS효성은 지난 18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가온 솔로이스츠’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HS효성

력으로 주목된다.

또한 뮤지컬 배우 김소현과 전세계 클래식 음악계의 양대 산맥인 커티스 음악원 및 줄리어드대 교수이자 세계적인 비올리스트 신윤 후앙이 특별출연해 가온 솔로이스츠와 함께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제7회 정기연주회 ‘어린이 정경’은 슈만의 명곡에서 영감을 얻어 어린 시절의 순수한 기억과 감정을 음

악으로 풀어냈다. 피아니스트 김기경이 편곡을 맡아 드뷔시, 라벨의 클래식 곡부터 ‘시네마 천국’ 등 친숙한 영화음악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가온 솔로이스츠는 2021년 비올리스트 김유영 음악감독과 배우자 조현연 대표와 함께 설립한 단체다. “장애가 있든 없든 모두가 주인공으로 함께 무대에 선다”는 철학 아래 장애 연주자

와 비장애 연주자가 경계를 허물고 함께 어우러지는 통합 앙상블로 17명의 장애 연주자와 8명의 비장애 연주자 등 총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2024년에는 경기도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되었고, 올해는 서울문화재단의 ‘2026 서울 메세나 지원사업’에 선정돼 장애·비장애 예술가들의 통합 연주를 통해 장애 인식개선과 장애예술인의 전문예술활동과 사회적 자립에 기여하고 있다.

HS효성 관계자는 “여러 셀럽들과 함께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낮추고 음악으로 하나될 수 있었던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객석 전석’이 매진되며 많은 분들이 뜻을 함께 해 주셨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HS효성은 ‘가치 또 같이’라는 슬로건 아래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숲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대한항공, 아시아나 임직원 합동 ‘한마음 페스타’

통합 앞두고 화합의 자리 마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올 연말 통합을 앞두고 노사가 화합의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18일 인천 계양구 계양아시아드양궁장에서 대한항공 노동조합(노조) 창립 62주년을 기념하는 노사 합동 ‘한마음 페스타’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One sky, One family’ 슬로건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임직원 및 가족 총 50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주요 내빈들도 참석했다.

우기홍 부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노사가 상생을 위해 신뢰하고 협력한다면,



지난 18일 인천 계양구 계양아시아드양궁장에서 열린 ‘한마음 페스타’ 행사 축하 공연이 진행되는 모습. /양성운 기자 ysw@

통합 대한항공은 절대 안전과 최상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항공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마음 페스타는 노사 상생과 화합의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자는 취지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아시아나항공과의 완전한 통합을 앞둔 만큼 행사 규모를 확대해 행사 참여 인

원을 작년보다 1000여 명 더 늘렸다.

이날 행사는 양사가 함께하는 팀대항 명랑운동회,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며 임직원 간의 결속력을 다졌다. 또 축하 공연과 어린이 체험존, 경품 추첨 행사 등을 진행하며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양성운 기자 ysw@

쿠팡 장애인 고용률 3.64%

쿠팡이 장애인 직접 고용을 확대하며 민간 기업 장애인의 의무고용률을 넘어섰다. 단순 채용을 넘어 직무 개발과 근무 환경 개선까지 병행한 점이 고용률 상승의 배경으로 꼽힌다.

쿠팡은 20일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3.6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의무 고용률(3.1%)을 달성한 이후 지속적으로 고용을 늘린 결과다.

쿠팡은 의무고용률을 안정적으로 상회한 배경으로 ▲직접 고용 원칙 ▲직무 다변화 ▲재택·원격 근무 확대를 제시했다.

쿠팡 관계자는 “장애인을 위한 직무를 지속 발굴하고 유연한 근무 환경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더 많은 인재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스타벅스, 전통시장 상생 공식 만든다

경동·광장시장 환경개선 활동

스타벅스 코리아가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경동시장과 광장시장의 환경 개선 활동을 진행하며 전통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공식을 만들어 나간다.

스타벅스의 시장 환경 개선 활동은 커뮤니티 스토어 5호점인 ‘경동1960점’과 10호점인 ‘광장마켓점’에서 조성된 지역사회 상생 기금을 활용해 진행하는 것으로 스타벅스는 해당 매장에서 판매되는 품목당 300원씩을 적립해 상생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다.

고객이 마시는 커피 한 잔이 곧 전통시장의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스타벅스는 해당 기금을 바탕으로 시장 접근성과 안전성, 이용 편의 전반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상생



스타벅스 전통시장 환경개선 활동 모습. /스타벅스 코리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스타벅스 김지영 ESG팀장은 “스타벅스 커뮤니티 스토어를 통해 고객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네이버 해피빈 ‘햇반 나눔에디션’ 선봬

네이버 해피빈이 CJ제일제당과 협업해 구매만으로 기부가 이뤄지는 ‘햇반 나눔에디션’을 선보인다.

네이버 해피빈은 20일 CJ제일제당과 함께 ‘햇반 나눔에디션 잡곡밥’을 출시하고 도서산간 지역 돌봄공백 아동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양사는 2024년부터 ‘나눔햇반 캠페인’을 통해 3년째 취약 아동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제품은 기부 목적 상품으로 양사가 단독 제작해 처음 선보였다. 햇반 패키지에 하트와 해피빈 캐릭터를 적용해 일상적인 구매 과정에 나눔의 의미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소비자가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별도 절차 없이 판매 수익금의 2%가 돌봄공백 아동 지원에 사용된다. 일상 소비를 통해 자연스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CJ제일제당은 경남 거제 지역 아동센터 10곳 등 도서산간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나눔에디션 잡곡밥 400박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인사

- ◆외교부 △ 국제법률국장 이석주 △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황준식
- ◆법무부 △ 서기관 승진 △ 감사담당관실 김용갑 △ 기획재정담당관실 이두형 △ 외국인정책과 김유호
-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 문화미디어산업실 문화산업정책관 문화인공지능정책과장 고영진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문화전략담당관 김지은

부음

▲최종욱씨 별세, 조동욱씨 남편상, 최준원·최윤주·최윤선씨 부친상, 이상수·양기혁씨 장인상 = 19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22일. 02-3410-3151

1시30분 이전 입장객 무료입장
지도자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글혀진동 웃음콘서트

기적을 만드는 3분

대전역 광장앞 아카데미하우스(구)아카데미극장 / 문의 1544-3235
4월25일 부터~ 토요일.일요일 오후 1시30분
무료 강의.공연으로 협찬사의 홍보시간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마라탕 중독과 균의 습격 ①



연운열의
푸드톡

지난 4월 중순, 한국소비자원이 마라탕에 대해 폭탄 발표를 했다. 국내 마라탕 프랜차이즈 20곳을 대상으로 위생실태를 점검한 결과, 3개 매장의 마라탕과 땅콩소스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이 무더기로 검출됐다는 것이다.

마라탕의 출생지는 중국 쓰촨(四川)성 러산(乐山)이다. 수백 년 전, 쓰촨의 뱃사공들이 배를 강가에 정박한 뒤 주위에서 구한 재료들을 한 솥에 넣고 돌 위에서 끓여 먹던 것에서 유래했다.

‘마라(麻辣)’라는 말 자체가 이 음식의 정체성을 요약한다. ‘마(麻)’는 혀가 얼얼하게 마비되는 느낌, ‘라(辣)’는 매운맛이다. 이 두 감각을 동시에 폭발시키는 비밀 병기는 화자오(花椒), 즉 중국 산초다. 일반 고추의 캡사이신과 달리, 화자오의 히드록시알과 산소유 성분은 혀의 감각 신경을 직접 마비시켜 그 독특한 얼얼함을 만들어낸다.

이 음식이 한국에 처음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은 2010년 무렵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많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문 음식점이 생기면서 시작되었다. 201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인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얼얼한 매운맛이 여성 청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면서 주요 변화가에 마라탕 프랜차이즈가 속속 문을 열었다.

마라탕 프랜차이즈 가맹점수는 2020년 13개에서 2022년 106개로, 불과 2년 만에 715%나 폭증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마라탕 시장 규모는 약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다.

마라탕의 조리 방식은 독특하다. 손님이 양푼에 먹고 싶은 재료를 직접 담아 카운터에 내면, 무기에 따라 가격을 매긴 후 주방에서 재료를 넣고 탕을 완성해 가져다 주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직접 재료를 고른다는 점에서 마라탕은 일종의 ‘식탁 위의 커스터마이징 경험’을 제공한다. 육수의 핵심은 마라 소스다. 고추기름, 두반장(豆瓣醬), 화자오, 마늘, 생강, 각종 향신료를 오랜 시간 볶아 만든 소스를 육수에 녹여낸다. 매운맛 단계는 보통 0단계(백탕)부터 4단계까지로 나뉘고, 마지막에 제공되는 땅콩소스에 찍어 먹

는 것이 정통 방식이다.

마라탕 한 그릇의 칼로리는 어마어마하다. 재료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700~1200kcal에 달한다. 나트륨 함량은 하루 권장량(2000mg)을 훌쩍 넘기기 일쑤다. 포화지방 함량도 상당하다. 건강 측면에서 보면 결코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오래도록 찾는 이유를 알아보자.

첫째, 화자오의 마비 효과다. 혀가 얼얼해지면 뇌는 이를 일종의 자극 신호로 받아들이고, 엔돌핀과 도파민을 분비한다.

둘째, 커스터마이징 쾌감이다. 혼자서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재료를 조합해 먹을 수 있는 혼밥 친화적 음식이라는 점이 다양한 취향을 한 번에 충족시켜 준다. MZ세대의 개인화 욕구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화 로컬전략의 성공이다. 중국 현지와 달리 국물까지 마실 수 있도록 향신료를 줄이고 기름을 적게 쓴 것이 한국화 성공의 핵심 요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국물의 민족”에게 맞게 현지화된 것이다.

넷째, SNS 확산력이다. 마라탕의 빨간 국물과 형형색색 재료의 비주얼은 인스타그램을 타고 폭발적으로 퍼져 나갔다. 여성·2030 세대가 마라탕 검색을 주도하고 있다.

/기술사, 칼럼니스트

삼천당제약, 시장이 원하는 건 해명 아닌 신뢰



기지수첩
신하은
(자본시장부)

118만4000원과 48만5500원. 최근 한 달 기준 삼천당제약의 고점과 저점이다. 지난 달 30일 장중 120만원을 돌파한 뒤 2거래일 연속 급락하면서 이를 동안에만 시가총액 약 10조원이 증발했다.

지난 1월까지 20만원대였던 삼천당제약의 주가는 3월 들어 120만원까지 날뛰기를 했다. 단숨에 주가가 불어났지만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8거래일 만에 시가총액 4위로 다시 밀려났다. 결과적으로 삼천당제약이 ‘황제주’(주당 100만 원 이상)를 유지했던 기간은 단 4거래일에 불과하다.

삼천당제약의 주가가 종잡을 수 없는 흐름을 보인 이유는 ‘기술’ 때문이다. 앞서 삼천당제약은 미국 파트너사와 15조원 수준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하면서 기대감이 확대됐다. 하지만 삼천당제약이 내놓은 호재성 공시에는 경구용 비만·당뇨치료제와 관련해 약 1억달러 규모의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과 향후 판매 수익의 90%를 받는 독점계약을 미국 파트너사와 체결했다고만 적히면서 시장의 불신이 발생했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삼천당제약 최대주인 전인석 대표는 2500억원 수준의 주식 매각 계획을 밝혔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규모 지분 매각(블록딜) 계획 철회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시장의 신뢰는 한풀 꺾였다. 더불어 한국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내리면서 힘이 더 실린 모양새다.

주목되는 점은 일부 증권사와 애널리스트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언급했다는 점

이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삼천당제약의 경구용 비만·당뇨 제네릭 의약품과 관련한 추가 임상 필요성을 제기하자 삼천당제약은 허위 사실에 대한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거론했다. 사실상 부정적인 의견을 막으려는 과잉 대응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럼에도 바이오 기업들의 보수적인 대응은 불가피한 속제다. 특기가 빛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술이 등록되기 전까지는 철저히 벽을 세울 수밖에 없다. 당장 실체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해야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비공개 정도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아무리 중요한 사안이라고 해도 시장의 신뢰까지 비공개할 수는 없다.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막연한 기술 기대감이 아니라 그 기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설명과 근거다.

/godhe@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1일 (음 3월 5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시비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60년생** 구설수가 따를 것이니 사람과의 교제를 잘하세요. **72년생** 맘 흘리는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84년생** 능력 있는 뒷사람을 만나 해결합니다.



49년생 동업은 길하다고 보겠습니다. **61년생** 남의 언쟁에 끼어드는 것을 삼가하세요. **73년생** 의외의 돈이 들어와 살림이 불어 나겠습니다. **85년생** 분수를 지키는 것이 상책입니다.



50년생 주변 유혹에 동조되지 마세요. **62년생**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잠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74년생** 누구나 때가 있는 법입니다. **86년생** 바라던 소망이 곧 이루어 지겠습니다.



51년생 소원이 성취되니 여태껏 노력을 한 보람이 있겠습니다. **63년생** 계약 건이 체결됩니다. **75년생** 만족할 만한 직장에 특채로 입사하게 됩니다. **87년생** 일이 많아지나 마음은 편안합니다.



52년생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64년생** 뒷사람이나 주위사람의 충고를 떠올리세요. **76년생** 부주의로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88년생** 커다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53년생 베풀고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더욱 길하겠습니. **65년생** 밖으로 나가면 좋지 않습니다. **77년생** 사업이 번창할모에 있습니다. **89년생** 하늘에서도 복을 내리는 형상입니다.



54년생 분수껏 행동하는 것이 유익 하리라 봅니다. **66년생** 친구의 유혹 등 주변을 조심하세요. **78년생**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 보세요. **90년생** 모든 것은 항상 시와 때가 있는 법입니다.



55년생 매사에 노력하고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67년생** 인내심과 끈기가 많이 필요 합니다. **79년생** 어느 곳으로 가든지 좋습니다. **91년생** 꾸준한 노력으로 이겨 내어야 합니다.



56년생 기다리는 마음을 가졌으니 분명히 이루게 됩니다. **68년생** 마음을 바로 잡고 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80년생** 죄를 지으면 안됩니다. **92년생** 방황했던 마음을 바로 잡는 운입니다.



57년생 거짓말을 절대 하지마세요. **69년생** 술자리에서 말다툼이 커질 수 있으니 시비를 조심하세요. **81년생** 생각지도 못한 지출을 하게 됩니다. **93년생** 가정사에 큰 경사가 생깁니다.



58년생 주변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이 생깁니다. **70년생** 설 틀 없이 바쁘지만 실속은 있습니다. **82년생** 많은 사람들이 귀하를 도와 주려고 합니다. **94년생** 도모하는 일이 호황을 맞게 됩니다.



59년생 역경을 피하지 말고 당당히 부딪혀 보세요. **71년생**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83년생** 허황된 일은 삼가 하여야 합니다. **95년생** 일을 급히 도모하려고 마음을 태우지 마세요.



김상회의四季 성동격서, 허 찌르기

중국 고대 병법 36계 중 성동격서는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공격한다는 뜻이다. 적의 주의를 엉뚱한 곳으로 돌려놓고, 정작 중요한 목표물의 허를 찌러 공략하는 기만전술의 핵심이다. 전쟁터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이 지략은 비단 군사 작전에만 머물지 않는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이 성동격서의 원리는 놀라울 정도로 유효하다. 많은 사람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정면 돌파만을 고집하곤 한다. 정공법은 분명 당당하고 멋져 보이지만, 때로는 너무 많은 에너지 소모를 불러오고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혀 좌절을 겪게 한다. 이때 필요한 전략이다. 주변의 상황을 살피며 때로는 우회하고 때로는 시선을 분산시키는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병법의 원리는 사주 명리학의 조화, 통관 이론과 맥을 같이 한다. 특정한 기운이 너무 강해서 흐름이 막혀 있을 때, 억지로 누르려고 하면 오히려 반발이 일어나 사달이 난다. 이때는 강한 기운을 자연스럽게 흘러보내는 설기나, 서로 대립하는 두 기운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통관의 지혜가 필요하다. 성동격서 역시 눈앞의 장애물과 정면으로 부딪치기보다, 다른 쪽으로 에너지를 흐르게 하여 목적을 달성한다는 점에서 명리의 상생 원리이다. 직장에서 상사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 정면으로 논리를 내세워 싸우는 것은 하책이다. 오히려 업무 외적인 부분에서 성실함을 보여주고, 정작 본인이 관찰하고 싶은 안건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골라 제안하는 것이 훨씬 영리한 처세다. 비겁이나 재성이 과한 사주는 눈앞의 이익만 따라가다 제풀에 무너지곤 한다. 이때 성동격서 전략처럼 한 호흡 쉬어가며 주변을 살핀다면, 삶의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결과를 손에 쥌 수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서울은 그랜드의 월드프린을 출간하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6	1		5	3	
6								
				3	6			
1				9			7	8
7								6
8	6			2				4
		2	9					
								9
	9	6		7	5		8	

			5			6		
7								3
	4		9	2				7
		4		2	5			
	2						4	
			3	6		1		
3			1	8			7	
6								5
		8				3		

8	8	2	9	2	1	9	6	7
6	9	7	2	8	8	2	1	9
9	1	2	7	9	6	2	8	8
7	9	1	2	2	8	6	9	8
9	2	6	1	8	9	8	7	2
8	2	8	9	6	7	9	2	1
1	6	9	8	7	2	8	9	2
2	7	8	6	9	2	1	8	9
2	8	9	8	1	9	7	2	6

1	9	2	8	9	2	8	6	7
9	8	8	6	7	2	1	2	9
6	2	7	9	8	1	2	9	8
2	9	1	7	9	8	2	8	6
8	7	8	1	2	6	9	2	9
9	6	2	9	2	8	7	8	1
2	1	9	2	6	9	8	7	8
8	2	6	8	1	7	9	9	2
7	8	9	2	8	9	6	1	2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89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01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상선 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지방대가 지역 살린다”... 공동책임·성과연동 체계 도입

교육부, 'RISE' 시행령 입법예고 시·도지사-대학총장 공동위원장 성과평가 기반으로 예산 차등배분



교육부

/메트로신문 DB

지방대학을 단순 교육기관이 아닌 지역 성장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리면서, 대학 총장이 시·도지사와 함께 지역 혁신 정책을 설계하는 공동 책임 주체로 참여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동시에 성과평가와 예산 차등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조도 도입된다.

교육부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 2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지역 인재양성과 대학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체화한 것이다. 해당 법률은 오는 8월 시

행될 예정이다.

◆지역 초광역 중앙 3단계 협력 체계

이번 시행령은 지역·초광역·중앙 3단계 추진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운영, 성과평가, 규제특례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총 7장 2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다.

우선 지역·초광역·중앙으로 이어지는 3단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시도별로 설치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는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대학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 관계자 위원을 전체의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대학의 규모와 유형 등을 고려해 위원을 균형 있

게 구성하고, 교육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위원회 내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전문적 검토와 운영의 효율성을 확대한다.

복수 시도가 참여하는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는 주관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시도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육부장관이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해 지방정부 간 초광역 협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대학·지역 동반성장 위원회에는 법률에서 규정한 부처 외에도 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 법무부를 포함해 지역 고용과 정주 연계 정책까지 아우르는 범부처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성과평가 등 정책환류 '책임성 강화'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한 정책 환류 체계도 도입된다. 시행령은 '평가-환류-공개-예산 차등배분'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통해 시도의 책임성을 제

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시도 자체평가와 교육부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도록 해 참여 대학과 지방·중앙정부의 책임성을 높인다. 시행령(안)은 시·도지사가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교육부도 별도 평가를 통해 결과를 확정·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규제특례 제도도 체계화된다. 시·도지사와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 신청은 매년 9월에 받아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다음 해 학기 시작 전에 관련 준비를 마무리하도록 했다.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시 신청도 가능하다. 아울러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규제특례를 관리·감독하도록 해 특례 부여 이후의 이행 상황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동대문서 72억 규모 '작통 왕국' 적발

역대 최대 규모... 건물 한층 독점 운영 서울시, 현장서 총 1649점 압수



일반 가방진열로 위장된 비밀 창고 외부.

/서울시

동대문 관광상권을 기반으로 기업형으로 운영되던 위조 명품 판매 조직이 적발됐다. 압수 물량은 정품 기준 약 72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서울의 대표 관광지인 동대문에서 건물 한 층을 독점 운영하며 대규모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 2명을 적발해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현장에서 압수된 위조상품은 총 1649점으로, 정품 추정가 약 72억원에 달해 서울시 위조상품 수사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압수된 물품은 위조된 명품 브랜드 상표가 부착된 가방 868점, 지갑 653

점, 시계 128점 등으로 이른바 '미러급'으로 불리는 최상위 등급의 위조품들도 확인됐다.

검거된 일당 2명은 10년간 대형 소품물 건물 한 층 대부분을 점유해 철저한 보안 속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기업형 매장을 운영해왔다.

이들은 관광 가이드와 연계한 단체 구매로 대량 매출을 올렸다. 매장 내부에는 외국 명품 잡지들을 비치해 두고 이를 단순한 전시용이 아닌, 지나가는 고객의 구매 의사를 확인하거나 서로를 식별하는 은밀한 암호·신호로 활용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 아파트 2월 실거래가 1.9% 상승

서울시, 동북·동남권 오름세 견인 주간지수·실거래지수 엇갈린 흐름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격이 한 달 전보다 1.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가격 상승 흐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주간지수와는 다른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달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1.90% 상승했으며,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15.7%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2월 실거래가격지수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체결된 매매계약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 전수를 분석해 한국부동산

원에서 산출한다.

생활권역별로는 모든 생활권역에서 상승했으며, 특히 동북권과 동남권이 모두 전월 대비 2.35% 상승하며 서울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조사·공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지수는 2월 당시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월 실거래 전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실거래가격지수는 오히려 1월 대비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두 지수 간 상이한 흐름이 확인됐다.

특히 동남권의 경우, 주간 지수 상승률은 서울 전체보다 낮은 수준에서 둔화하다 2월 4주에는 하락 전환한 반면, 2월 실거래가격은 상승폭이 오히려 확대돼 서울 전체 상승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착수

연천군·파주시·포천시 대상

정부가 2026년과 2027년 총 4곳의 평화경제특구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가 후보지별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후보지로 선정된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가나다 순)를 대상으로 20일부터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평화·안보 가치와 산업·경제 기능을 결합한 국가 전략사업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법인세, 지방세 등 혜택이 주어지며, 산단형이나 관광문화형, 복합형 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대상지역은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다.

연구용역은 2026년 4월 20일부터 2027년 10월 19일까지 18개월간 추진되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다. 연구 범위는 경기도 후보지로 선정

된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의 지역별 여건과 강점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계획 수립이다.

주요 과업은 ▲평화경제특구 지정 필요성 및 지역 여건 분석 ▲산업·관광·투자 유치 등 특화전략 수립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계획 마련 ▲단계별 개발사업 실행방안 도출 ▲정부 지정 신청을 위한 개발계획서 작성 등이다.

도는 5월 중 착수보고회를 열어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해당 시·군과 정례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50 | 해질 / 19:13

4월 21일 (화) / 음력 : 3월 5일

수도권 날씨 / 6 ~ 19°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3/20, 동두천 4/20, 가평 2/20, 파주 3/19, 서울 6/19, 양평 3/20, 인천 7/16, 수원 5/18, 용인 5/18, 평택 3/2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이란 측, 화물선 나포에 “美군함 여러척 드론으로 타격” 주장
▲트럼프 “이란 합의안 서명 안하면 나라 전체 날릴 것” 또 최후통첩 /사진 뉴시스

▲“기름값 폭등? 트럼프 책임” 美 중도층 53%도 등 돌렸다
▲美, 드론으로 호르무즈 기러 제거중...“탐색 수일내 완료”

▲“美 나포 이란 화물선, 中 ‘미사일 고체연료 적재 거점’서 출항”
▲트럼프, 이란 시위 희생자 유족에 친서...“끔찍한 비극 잊지 않겠다”



유통가 댈친
잔인한 봄
나들이 특수 '실종'
너



Life

HS효성
장애·비장애
경계 허문다
L4



연결 넘어 공감으로... '사람 중심 AI'로 빛나는 따뜻한 기술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 전환(AI)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며 기술과 사람, 환경의 조화를 지향하는 지속가능경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20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통신의 본질인 연결을 넘어 사람 중심의 AI 기술로 고객의 일상을 혁신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유플러스의 ESG 사업 중심에는 AI 기술을 통한 고객 경험 혁신이 자리 잡고 있다.

LG유플러스의 진화 중심에는 홍범식 대표이사가 강조하는 '사람 중심 AI'가 자리 잡고 있다. 홍 대표는 "기술을 향한 도전은 멈추지 않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믿음은 변함이 없다"며 "우리 회사는 '사람 중심 AI'를 통해, 더 따뜻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LG유플러스는 '안심하고 신뢰하는 AI(Assured)', '나에게 딱 맞는 AI(Adaptive)', '일상을 함께하는 AI(Accompanied)', '인류를 위한 AI(Altruistic)'라는 4대 AI 지향점을 수립했다.

특히 보안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시큐리티 퍼스트(Security First)' 프레임 구축해 신뢰성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체 통신 특화 AI 모델인 '익시젠(ixi-GEN)'은 저작권과 개인정보 이슈가 해결된 데이터로 학습되었으며, 환각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검색 기반 답변 생성 기술(RAG)을 적용했다. 이와 더불어 인간 존중, 공정성, 안전성, 책임성, 투명성을 골자로 하는 LG AI 윤리 원칙을 준수하며 AI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 중이다.

AI 기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 청각장애인 임직원이 AI 통화 서비스 '익시오(ixi-O)'의 실시간 자막 변환 기능을 활용해 생애 처음으로 어머니와 직접 통화한 사례는 기술이 사람의 마음을 잇는 따뜻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또한 의료 상담 특화 AICC를 통해 스마트 병원 구현을 돕고, 'SHIFT'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출범해 국내 AI 생태계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그린 웨이(Green Way)' 전략을 고도화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의 권고안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재설정하여 2025년 5월 Near-term(단기 기간) 목표 승인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2022년 대비 2033년까지 직접 및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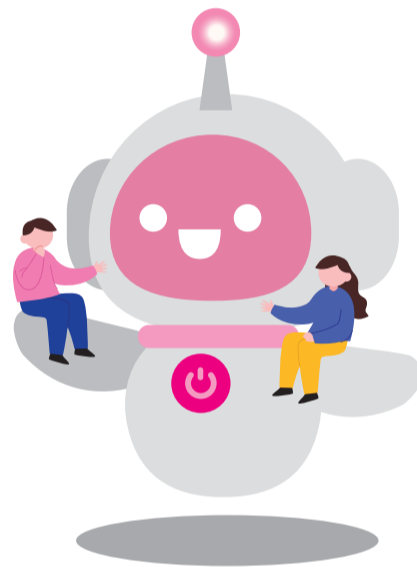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지난 3월 2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 전시장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2026'에서 기조연설 하고 있다.

AX 핵심 전략으로 지속가능경영 펼쳐
기술-사람-환경의 조화로움 지향해
사람중심 AI 기술로 사회적 가치 창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그린 웨이'
자가 태양광 설비 확대, 온실가스 감축

시각장애인 위한 교통솔루션 만들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일자리 창출

통신3사 최초 '준법경영시스템' 인증
정보보안센터 재편... 24시간 대응 가동



54.6% 저감하고,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량 (Scope 3) 또한 2023년 대비 32.5% 감축할 계획이다.

실제 성과 측면에서도 2024년 기준 1044 kW 규모의 대전 연구개발(R&D) 센터 자가 태양광 설비를 준공하여 연간 약 630tCO2e q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총 전력사용량의 약 7.5%에 해당하는 244GWh 규모의 녹색 프리미엄을 조달했다. 친환경 인터넷 데이터센터(IDC)인 평촌 2센터 역시 외기 냉방 시스템과 고효율 냉방기를 도입하여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

사회적 포용성 강화를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통 솔루션 '데이지(Day-Easy)' 실증 사업을 완료했으며, 전국 맹학교에 시각장애 청소년을 위한 'U+ 희망도서관'을 건립해 정보 격차 해소에 나서고 있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2030년 여성 구성원 비율 25% 달성을 목표로 여성 리더 육성 프로그램과 워킹맘 경력 개발 워크숍을 운영 중이며, 장애인 표준사업장 '위드유'를 통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사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ESG 전문가인 엄윤미 사외이사를 ESG 위원장으로 선임해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2022년 국내 통신 3사 최초로 글로벌 준법경영시스템 국제 표준인 'ISO 37301' 인증을 획득한 이후 매년 사후 심사를 통해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정보보안센터를 CEO 직속 조직으로 재편하고, 24시간 365일 대응 가능한 통합관제센터를 가동하며 보안 기반기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범식 대표는 "고객에게 꼭 필요한 경험을 제공하고,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AI를 통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LG유플러스는 소아암 환아와 가족 86명에게 휴식과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지난 13일 경기 광주시 화담읍에서 사생대회를 열었다.

◀LG유플러스대전 R&D센터에 방문한 홍범식 사장(맨 오른쪽)이 홈서비스 품질 직원에게 업무 설명을 듣고 있다. /LG유플러스

메트로 한줄뉴스



▲이정후, 연속 경기 안타 행진 5경기서 마감...3타수 무안타 '침묵' /사진 뉴시스
▲원태인 논란에 강민호 나섰다... "삼성에 버릇없는 후배 없어"

▲손흥민, LAFC 완패에도 평점 7점...베르너 양팀 최고 평점
▲'괴물 수비수' 김민재, 이적설 잡음에도 3번째 '빅리그 우승'

▲'조선왕릉원정대', 6박 7일간 조선왕릉 40기 답사
▲'왕사남' 단종 만나러 간다...유산청, 청령포·장릉 영월 답사 모집